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4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양보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Counter words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Based on Beginner Learners from Chinese, Mongoli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양보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Counter words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Based on Beginner Learners from Chinese, Mongoli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양보희

양보희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양 보 희

본 연구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단위명사를 살펴보면 어휘 수뿐 아니라 제시 방법에 있어 통일성이 없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재별로 제시된 어휘 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학습자들은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교재로 배우느냐에 따라 어휘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휘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한국어 단위명사의 특성상 인접 선행하는 수사 및 명사에 따라 선택 제약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어휘의 의미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살펴 그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제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언어마다 단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단위명사 어휘 교육 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단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 시 그들의 겪는 난점을 알아본 뒤 각각의 모국어와 대조해봄으로써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원활한 수량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단위명사 교육, 분류사 교육, 수사, 수량사, 중국어권 학습자, 몽골인 학습자, 영어권 학습자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및 범위	1
1.2 선행연구	5
II. 한국어 단위명사의 특성과 교육 현황	11
2.1 단위명사의 개념과 분포	11
2.2 단위명사와 수사의 결합 관계	13
2.3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현황 분석	19
III. 단위명사 학습에서의 전이와 간섭 현상	38
3.1 중국어권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41
3.2 몽골어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48
3.3 영어권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53
IV. 초급 학습자 대상 단위명사 교수 방안	58
4.1 단위명사 교수자료	60
4.2 단위명사 교육 실용서 구성안	66
V. 결 론	73

참고문헌	75
부 록	79
ABSTRACT	83



표 목 차

<표 1> 2013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3
<표 2> 어원에 따른 한국어 수사 - 단위명사 결합 형식	18
<표 3> 한국어 교재 목록	21
<표 4> 경희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23
<표 5>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25
<표 6> 서강대학교 『New 서강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27
<표 7>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29
<표 8>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31
<표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33
<표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35
<표 1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유형 비교	42
<표 12> 한국어와 몽골어의 수량 표현 유형 비교	49
<표 13> 한국어와 영어의 수량 표현의 예 비교	54
<표 14> 영어의 단위 표시 예	56
<표 15>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평가 기준	59
<표 16> 단위명사 교수자료 전체 항목	61
<표 17> 종류별 교사용 실용서의 특징	66

I.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범위

단위명사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사물들을 세는 의존명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부터 단위명사가 제시되며 물건·가격·시간·날짜 등의 주제와 함께 배우게 된다. 단위명사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한국어의 경우 수와 종류가 많고 결합 제약 또한 다양하다. 또한 고창수(2010:46)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다양한 단위명사가 존재하고 각 사물에 따라 단위명사 사용이 달라지므로 자주 사용되는 단위명사는 그 정확한 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위명사는 한국어 수량 표현 시 사용되며 수량 표현 구성 요소로는 명사, 수사(혹은 수관형사) 그리고 단위명사로 이루어진다. 노대규(1977:726)에 따르면 수사가 순수 국어 계통의 것과 한자어 계통의 것이 있는 것으로 나뉘어 존재하는 것처럼 단위명사에도 순수 국어 단위명사와 한자어 단위명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량 표현 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며 명사와 수사, 단위명사 결합 구성에 있어서 그 균형이 깨지면 의미적으로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 다양한 수량 표현 구조 중 사용되는 빈도를 고려할 때 ‘명사-수사-단위명사’ 유형이 가장 자유로이 쓰이며 ‘연필 한 자루’, ‘물 한 잔’ 같은 예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구성으로 ‘수사-단위명사(의)-명사’가 있으며 ‘한 자루의 연필’, ‘한 잔의 물’과 같이 어순이 교체되어 실현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한국어 수량 표현 시 명사, 수사(혹은 수관형사), 단위명사의 어순과 사용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실현된다는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사(혹은 수관형사)와 단위명사, 그리고 이들을 선행하는 명사는 의미적으로 공존 관계에 있으며 그 구성 요소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 비문법적이 되거나 적어도 의미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 시 개별 어휘 의미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 간의 공기 관계를 살펴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 단위명사의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과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초급 단

계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몇몇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위명사 어휘를 단순히 의미 제시 정도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어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로서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공기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내에서 단위명사를 다룰 때 일반 명사처럼 개별 어휘로 제시되어 의미 전달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단위명사는 의존명사의 하위 범주로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제시 방법에 있어서 개별 어휘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살펴 사용 구조를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대학 기관별로 출판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단위명사 어휘의 수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상자가 초급 학습자인 점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위명사가 제시되어 있기 보다는 많은 양의 어휘를 몰아서 한 차례에 실려 있기도 했다. 이는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 시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교재로 단위명사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어휘량의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교재들은 실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필수 단위명사 어휘를 초급 단계에 맞게 적절히 제시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단위명사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두 언어권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명사 개별 어휘를 두고 그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비교·대조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두 언어 사이의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와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들이 제안한 교육 방안 또한 의미 중심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물론 아시아권 언어가 한자어 교유의 특성 및 체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볼 때 일부 단위명사 어휘들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보면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을 할 때 의미 중심으로 어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자어 문화권 혹은 아시아 언어권 학습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한자어 문화권 안에서 의미가 같은 단위명사가 존재할지라도 수량 표현 시 구성되는 요소와 어순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단

위명사 교육이 일반 어휘 교육과 같이 의미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들이 단위명사 사용의 구조적인 부분을 간과하게 되어 개별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사용 오류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곳곳에 단위명사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하고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이때 연구 대상자는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로 삼도록 하겠다. 대상자를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서 국가별로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3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0,343	4,344	2,998	2,998	1,690	3,902	19,978	85,923
비율(%)	58.6	5.1	3.1	3.5	2.0	4.5	23.3	100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적별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이 58.6%로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유학생 비율이 5.1%, 몽골이 4.5%, 그리고 미국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와 같이 교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단위명사 의미와 구조, 사용에 있어서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수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2006년 809명에서 2013년 3,902명으로 10년 사이에 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주희(2011:2)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따지면 중국이 많지만 인구 대비로 환산하여 보면 중국은 0.004%인데 반해 몽골은 0.0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8월에 외교부가 발표한 『몽골개황』에 따르면 몽골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 한국 경제 발전 학습 열기 등으로 한국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영어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만국 공통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식, 정보의 전달 매체가 될 인터넷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최종호 2001:43).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서 주요 국가에 포함되는 미국의 경우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기관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외교연구원(Foreign Service Institute),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국방외국어대학(Defense Language Institute)등이 있으며 미국 국방외국어대학은 한국어 단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신현숙 2009:20).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논의도 소홀히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서 주요 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실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7개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초급 교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각 교재별로 어떻게 단위명사 교육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분석 대상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내용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교재로 색인에 나와 있는 어휘 외에도 본문, 듣기 지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명사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 어휘는 ‘개, 권, 명...’과 같은 순수 단위명사 어휘뿐만 아니라 ‘병, 사람, 송이...’와 같이 단위성을 나타내는 자립명사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명사는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누는데 자립명사의 분류 안에 있는 몇몇 어휘들 중 단위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채완(1998:50)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환경에 따라 자립명사가 의존적 기능을 할 때 의존명사라는 문법 정보를 따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수진(2003:3)에서는 어떠한 단어의 용법에 있어 품사 범주 간 경계의 유동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위명사들의 무리가 고정되고 폐쇄된 집합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실제 자립명사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병, 사람, 송이...’ 외에도 ‘잔, 접시, 조각...’ 등 단위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휘가 있으며 어디까지 순수 단위명사로 볼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단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립명사 어휘도 단위명사의 범주 안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2 선행연구

단위명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국어학에서는 단위명사의 명칭과 개념, 분류 체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국어학에서는 단위명사가 품사 체계에 있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단위명사 어휘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에서 진행되는 단위명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른 언어에서 발견되는 개별 단위명사 어휘를 비교·대조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언어의 수량 구성 요소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어학에서 다루어지는 단위명사 명칭에 관한 논의는 ‘셈날덩이 안옹근 이름씨’, ‘단위명사’, ‘수명사’, ‘셈단위’, ‘수량 단위어’ 등 학자마다 상이하며 단위명사 어휘 분류 체계도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단위명사를 대상 명사의 수량 단위를 표시하고 그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밝혀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배(1937)는 단위명사를 ‘셈날덩이 안옹근 이름씨’라고 하여 반드시 셈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에 쓰여 그 셈의 단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사물을 셀 때에는 반드시 ‘마리, 벌, 장...’ 등과 같은 단위어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송녕(1968)은 명사를 보통명사, 고유명사, 단위명사, 불완전명사로 나누고 수를 계산할 때 쓰이는 말 ‘못, 마리, 채, 말, 벌, 원, 간, 자, 치, 그루’ 등은 불완전명사와 구별하여 이를 ‘단위명사’ 또는 ‘수명사’라고 명명했다. 김영희(1976)는 단위명사를 ‘수량단위어’라 명하고 ‘가지, 단, 갑’을 예로 들어 이러한 수량 단위어 앞에 놓인 명사 ‘옷, 술, 담배’와 같은 지시 대상들을 셈술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셈술화하는 어휘를 ‘부류 셈술말(sotral quantifiers)’이라고 불렀다.

유동준(1983)에서는 단위명사를 ‘밤 한 톨’, ‘옛 한 가락’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톨, 가락’ 등을 ‘분류사’라고 부르며 지각 속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어휘들을 ‘척도, 모양, 배열, 인성, 수량’ 등 다섯 개 범주로 분류한 뒤 이것을 다시 14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채완(1990) 역시 ‘분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분류사’는 명사의 셈에 관여해서 그 명사의 의미 자질을 명세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학생 두 명’에서 ‘명’은 명사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며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분류사의 기능에 따라 도량 분류사와 부류 분류사로 나눈 뒤 도량

분류사를 다시 표준화된 도량형과 일시적 도량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부류 분류사는 기능, 사건이나 행위, 모양, 인체의 범주로 나누었다. 곽추문(1997)은 단위명사 연구에 있어서 처음으로 동작, 행위의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표현을 동작 분류사로 분리한 뒤 단일성 동작 분류사와 집체성 동작 분류사로 재분류하였다.

‘분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동준(1983), 채완(1990), 곽추문(1997)의 연구는 단위명사를 분류사의 관점에서 부류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학자마다 부류를 설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동일한 단위명사를 달리 분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곽추문(1997)에서 ‘번, 회, 끼...’ 등의 항목이 동작 분류사의 범위에 해당되었다면 채완(1990)에서는 위와 같은 어휘 항목들을 사건·행위 해당하는 부류 분류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단위명사의 분류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분류사’라는 명칭에 대해 이승명(1998)은 세는 대상은 품사로 보면 ‘명사’인데 그 의미 자질을 더 자세하게 밝혀주는 구실을 하므로 ‘분류의 기능을 가진 명사’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분류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잉여적인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선 학자들의 ‘분류사’ 명칭과 그 전반적인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문법 범주에서 ‘사(詞)’로 끝나게 되면 그 범주는 당연히 하나의 품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류사는 아직 국어의 품사 체계에서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 따르면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명사, 명수사, 셈날이름씨’라는 용어로 표기하여 수효나 분량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서 ‘쇠고기 한 근’, ‘고무신 한 켤레’에서 ‘근’, ‘켤레’ 따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민수·임홍민·이승녕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도 ‘단위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명수사 또는 수 단위 불완전명사’라고 제시되어 ‘수효나 분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단위명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단위명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아시아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한국어 단위명사를 비교·대조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크게 두 언어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명사 개별 어휘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두 언어의 수량 표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 나눈다. 외국어와 한국어에 존재하는 각각의 단위명사를 비교·대조한 연구로 육요(2009), 나자루딘(2010), 서원

(2010), 정상희(2010) 등이 있다.

육요(2009)는 연구의 대상을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로 두고 두 언어의 수량 표현에 쓰이는 단위명사를 비교하였는데 세부 사항으로 한국어 단위명사와 중국어 양사의 개념, 분류, 특징을 대조하였다. 이때 분석 대상 어휘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한자어를 중심으로 완전동의, 부분동의, 완전이의 3가지로 나누어 총 106개 동형 한자어 단위명사 의미와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러나 완전동의를 나타내는 동형 한자어 어휘 중에서도 사전에서 같은 의미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용법상 그 쓰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자루딘(2010)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이 다르고 계통도 다르지만 수량 표현의 구조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어 ‘개’와 인도네시아어 ‘buah’의 의미 범주를 분석한 뒤 두 어휘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인도네시아어 단위명사 ‘buah’는 한국어 단위명사 ‘개’와 같이 가장 넓은 범위로 나타나며 다른 단위명사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어 단위명사 ‘buah’의 경우 한국어 단위명사 ‘개’와 비교했을 때 의미적으로 사용 범주가 넓지 않지만 ‘개’와 달리 ‘사랑, 희망, 이유...’ 등 추상적인 명사와 호응하여 단위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원(2010)은 한국어가 어원적으로 알타이어족에 속하지만 고대 중국어의 영향으로 단위명사가 널리 쓰여 왔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어의 한자어 단위명사 중에는 중국어의 양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어휘가 많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국어 단위명사 ‘개’와 중국어 양사 ‘수’를 비교하였다. ‘개’와 ‘수’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명사 및 수사와 결합하는지 그 형태를 살펴본 뒤 의미상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명사와 결합 관계를 살필 때 먼저 명사를 유정성의 유무에 따라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누고 다시 유정명사를 인간명사와 동물명사로 나눈 뒤 무정 명사를 신체부위, 식물, 사물, 추상 명사로 세밀하게 나누어 비교하였다.

정상희(2010)는 중국어 양사와 한국어 단위명사는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 분류 원칙과 용법 면에서 상이한 사항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어 능력 시험 HSK(Hanyu Shuiping Kaoshi, 汉语水平考试)에 수록된 양사 137개를 용법에 따라 중국어 양사가 한국어 단위명사로 대응되는 용법, 중국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으로 분류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

구자 본인이 제시한 분류 체계에 따라 중국어 양사가 한국어 단위명사로 대응되는 72개의 어휘가 있으며 한국어에는 없고 중국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양사가 65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어 양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대응되는 단위명사가 적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와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 단위명사는 용법 면에서 중국어 양사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보통 의미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단위명사 어휘를 놓고 이들이 사용되는 낱말 표현이나 문장 표현들을 모아서 두 어휘를 비교·대조 분석하였던 연구들이었다. 두 개별 언어의 대응 관계를 비교·대조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어 양사와 비교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한자어 단위명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단위명사 중 ‘개’와 비교·대조한 연구가 있는데 단위명사 ‘개’가 한국어에서 사용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두 언어의 수량 표현 구성을 비교한 연구로는 조완제(1998), 안수정(2006), 정우영·양호(2010), 류푸민(2011), 김유진(2012), 표국남(2014) 등이 있다. 이들은 수량 표현 시 나타나는 어떠한 항목이나 구조가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아니면 그 규칙이 없는지 비교·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완제(1998)와 안수정(2006)에서는 일본어의 수량 표현 구성에 관해 다루었다. 일본어는 ‘助数詞(조수사)’라고 하여 단위명사가 존재하는데 전통적으로 ‘助数詞(조수사)’를 수사 뒤에 붙는 접사라고 보았다. 일본어 역시 한국어처럼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서로 구분되어 쓰이며 명사와의 대응 관계가 한국어처럼 일정치 않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어의 수량 표현 구성은 명사, 수사, 조수사로 구성되며 한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の’가 첨가되어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명사-수사-조수사’와 ‘수사-조수사(の)-명사’로 교체되어 표현이 가능하다.

정우영·양호(2010)는 한국어와 중국어 수량 표현 구성의 유형을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한국어 수량 표현 유형은 ‘명사-수사’, ‘명사-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 ‘수사/수관형사(의)-명사’, ‘수사/수관형사-단위명사(의)-명사’인 반면 중국어 수량 표현의 유형은 ‘명사-수사-양사’, ‘수사-명사’, ‘수사-양사-명사’임을 확정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어의 어순은 주술 구조에서 수식 구조로 바뀌었지만 한국어는 주술 구조를 유지하여 두 언어가 실현되는 어순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두 언어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명사

의 지시적 속성이 차이를 보이며 한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발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류푸민(2011)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위명사 의미와 용법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어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교착어이고 미얀마어는 중국 티베트어족에 속하는 고립어로 어족이 다르지만 두 언어가 수량 표현 시 기본 어순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미얀마어에는 한국어와 동일한 수량 표현 유형으로 ‘명사-수사-단위명사’가 존재하며 단위명사가 수사와 결합 시 규칙이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어 수사의 경우 팔리어계와 고유어계로 나뉘는데 고유어 수사는 고유어 단위명사 및 팔리어 단위명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팔리어 수사는 팔리어 단위명사만 같이 쓰일 수 있으며 고유어 단위명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얀마어의 또 다른 수량 표현 구조로 ‘명사-(형태소)-단위명사-수사’가 있으며 이 유형은 수사의 수량에 따라 20부터 30, 40, 50...등 십, 백, 천과 같이 수가 영(0)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유진(2012)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단위명사 결합 형식을 대조하였다. 계통 면에서 한국어와 태국어는 언어학적 특징이 다르지만 태국어에서도 한국어 단위명사에 해당하는 ‘ลักษณนาม’이 존재하며 한국어로는 이를 ‘유별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태국어와 한국어의 수량 표현 구성 시 공통적으로 ‘명사-수사-단위명사’ 구조가 존재하며 태국어는 이 외에도 한국어 수량 표현 유형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유별사-수사/서수사/지시형용사/형용사’ 구조가 있다고 하였다. 태국어에도 한국어 단위명사 ‘개’에 해당하는 어휘로 ‘อัน’이 있으며 사용 의미와 영역이 비슷하나 태국어 ‘อัน’은 보다 좁은 범위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표국남(2014)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수량 표현을 대조한 연구를 하였는데 베트남어에도 한국어 단위명사에 해당하는 ‘danh từ đơn vị’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수량 표현 시 ‘danh từ đơn vị’를 사용하여 나타내며 ‘수사-단위명사-명사’와 ‘단위명사-명사’ 두 가지 구조가 있으며 이때 단위명사와 명사만으로 구성된 유형의 경우 수량화 기능보다는 부류화 기능을 강조하여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이 단위명사 명칭에 관한 논의가 문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위명사라는 의미를 가진 ‘danh từ đơn vị’와 분류사라는 의미를 가진 ‘loại từ’ 두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에서는 ‘loại từ’에서 ‘danh từ đơn

vị'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어 문법에서는 명사를 일반명사와 단위명사로 나누고 이때 단위명사를 'danh từ đơn vị'라 지칭하여 'loại từ'를 'danh từ đơn vị'의 하위 영역에 두고 있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영어와 불어 등 단위명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인도·유럽어보다 아시아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내용으로는 주로 두 언어 사이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위명사를 대응시켜 비교·대조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언어권 내에서도 단위에 대한 개념도 나라마다 상이하며 각각 상응하는 단위명사 어휘의 쓰임 역시 다르다. 또한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에도 구성 요소와 결합 순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단위명사를 교육할 때 동일한 한자어 문자를 접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한자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사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수량 표현 시 두 언어 사이에 단위명사 결합 유형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 학습자가 개별 단위명사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어 단위에 대한 개념과 구조적인 사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단위명사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점이 바로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시 사용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단위명사 교육이 일반 어휘 교육처럼 개별 의미에 치중하여 진행되기 보다는 한국어 단위에 대한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살펴 구조적인 사용에 중점을 두고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Ⅱ. 한국어 단위명사의 특성과 교육 현황

2.1 단위명사의 개념과 분포

단위명사는 명사의 하위 개념으로 어떠한 지시물의 의미적인 범주를 한정하여 ‘단위성’을 표시한다. 어원별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존재하며 지시물을 나타내는 대상 명사와 사용 결합에 있어서 선택 제약이 따르고 선행하는 수사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어 단위명사는 인접 선행하는 수사(혹은 수관형사)와 그것을 지시하는 명사에 따라 선택 제약이 발생하며 일반 명사와 구분되는 통사적 특징을 갖는다.

(1) ㄱ. 물 한 컵

물 한 잔

ㄴ.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ㄷ. 강아지 한 마리

ㄹ. 쌀 일 킬로그램

ㅁ. 김치찌개 일 인분

(1ㄱ), (1ㄴ), (1ㄷ)의 예를 살펴보면 단위명사 ‘컵, 잔, 송이, 그루, 마리’는 단위화의 대상인 ‘물, 꽃, 나무, 강아지’와 각각 호응하여 사용되었다. (1ㄱ)을 보면 대상 명사는 ‘물’로 동일하나 첫 번째 문장은 외래어 단위명사 ‘컵’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문장은 한자어 단위명사 ‘잔’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물 한 컵’과 ‘물 한 잔’이라는 두 표현을 비교해 보면 대상 명사는 동일하나 선택되는 단위명사 어휘가 다르게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ㄴ)의 경우 대상 명사가 같은 식물 계열에 속하였음에도 ‘송이’는 ‘꽃’의 부류에 속하는 명사와 결합이 제한되고 ‘그루’는 ‘나무’와 같은 부류의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에 (1ㄷ)의 단위명사 ‘마리’는 위에 제시된 ‘강아지’ 이외에 ‘새, 소,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부류에 속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단위명사는 (1ㄱ), (1ㄴ), (1ㄷ)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 명사의 속성이나 특질을 바탕으로 어휘 선택에 있어서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실현된다.

또 다른 문제로 단위명사와 결합하는 수사 혹은 수관형사 사용에도 선택 제약이 따른다. (1ㄱ), (1ㄴ), (1ㄷ)의 경우 각각의 단위명사가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지만 외래어 단위명사를 사용한 (1ㄴ)과 한자어 단위명사를 사용한 (1ㄱ)을 살펴보면 수사와 결합하였다. 이렇게 한국어 단위명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수사 혹은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데 선행 요소로 한자어 수사 ‘일, 이, 삼, 사…’가 올 수 있고 고유어 수관형사 ‘한, 두, 세, 네…’가 올 수도 있다. 이때 선택되는 단위명사 어휘에 따라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도 있고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단위명사에 따라 수사와 수관형사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ㄱ.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 ㄴ. 한국에 온 지 일 개월이 되었다.
- ㄷ. 담배 한 대를 피웠다.
- ㄹ. 담배 한 개를 피웠다.
- ㅁ. 오 미터 달리기를 하다.
- ㅂ. ?다섯 미터 달리기를 하다.
- ㅅ. 고기 다섯 근을 샀다.
- ㅇ. ?고기 오 근을 샀다.

위 예문에서 (2ㄱ)과 (2ㄴ)은 그 의미가 같음에도 (2ㄱ)의 단위명사 ‘달’은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고 (2ㄴ)의 ‘개월’은 한자어 수사와 결합한다. 의미가 같은 또 다른 문장 (2ㄷ)과 (2ㄹ)의 경우 고유어 수관형사 ‘한’이 단위명사 ‘대’와 결합하기도 하고 단위명사 ‘개’와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2ㅁ)과 (2ㅂ)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명사 어휘에 따라 어떠한 단위명사는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고 어떠한 단위명사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한다. 문제는 이러한 결합 과정이 뚜렷한 기준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데 있다.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은 위와 같이 문법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상황 설정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ㄱ. ?선생님 두 명이 온다.
- ㄴ. 선생님 두 분이 온다.
- ㄷ. ?선생님 두 놈이 온다.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는 단위명사로 ‘명, 분, 놈’이 수의 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라도 화자의 관점이나 화법의 위계에 따라 문장의 용인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3ㄱ)에서 화자의 직업이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3ㄷ)과 같이 단위명사 ‘놈’을 사용할 경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단위명사 사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시간과 장소의 적절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어휘가 달라지며 화자의 의도와 발화 의미에 따라 단위명사 사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2 단위명사와 수사의 결합 관계

단위명사는 단독으로 사용 될 수 없고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성분으로 명사, 수사 혹은 수관형사와 함께 쓰인다. 단위명사 중 ‘개’와 같이 명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널리 쓰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상 명사의 의미 자질에 따라 단위명사의 사용 시 선택적 제약을 갖는다. 또한 단위명사에 인접 선행하는 수사나 수관형사는 단위명사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휘에 따라 고유어 수관형사와 공기하는 것도 있고 한자어 수사와 공기하는 것도 있다.

김인균(2008:10)에 따르면 수사는 명사의 하위 부류로서 독립 품사가 아니며 수관형사 또한 수사의 관형어적 쓰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수사와 수관형사가 그 기본 의미 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수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 그 형태의 변화에 상관없이 명사 뒤에 오는 경우와 동일한 수량 의미를 가지므로 모두 수사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노대규(1977:210) 역시 현대 언어학의 이론에 따르면 수사는 명사류에 속하며 수관형사는 수사의 변이형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수사를 지칭하

는 용어도 ‘수량사, 양화사, 수사, 셈술말’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지칭하는 대상 또한 수사만을 단독으로 다룬 경우, 수관형사를 함께 다룬 경우,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지 않고 언급한 경우 등 용어 사용 범위가 학자마다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수사 혹은 수관형사’를 나타내는 여러 용어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재어로 등록되어 있는 ‘수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다루게 될 ‘수사’의 범위는 ‘첫째, 둘째…’ 혹은 ‘제일, 제이…’와 같은 서수사를 제외한 기수사에서 고유어 정수 ‘하나, 둘, 셋…’과 한자어 정수 ‘일, 이, 삼…’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겠다. 그러나 이때 고유어 수사의 변이형태로 ‘하나, 둘, 셋…’이 단위명사와 결합 시 ‘한, 두, 세…’와 같이 수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고유어 수관형사와 한자어 수사만을 ‘수사’의 범위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한국어 수량 표현은 명사, 수사, 단위명사로 구성되며 어순에 따라 실현 방법이 다양하지만 수사와 단위명사가 분리되어 표현되지 않는다. Greenberg(1977)에서는 핵 명사에 의해 수사와 단위명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속성 때문에 수사와 단위명사의 어순은 바뀌지 않지만 두 결합체는 핵 명사의 앞 또는 뒤에 위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인균 2005:157 재인용).

채완(1983:33)¹⁾은 국어의 수량사구 유형을 고찰하여 아래 (4)와 같이 네 가지 구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기원을 ‘수사-명사’에 두고 수량 구성의 변화 추세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수사’ 구성이 가장 자유로이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단위명사가 있는 표현이 단위명사가 없는 표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는 국어가 단위명사가 없는 수량사구에서 단위명사가 있는 수량사구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는 단위명사가 있는 수량사구가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 (4) ㄱ. 명사 - 수사
- ㄴ. 명사 - 수사 - 단위명사
- ㄷ. 수사 - 명사
- ㄹ. 수사 - 단위명사 - 명사

1) 채완(1983)은 ‘개, 명, 마리…’와 같은 어휘를 ‘분류사’라 지칭하여 사물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논문의 흐름 상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분류사’라는 용어를 ‘단위명사’로 대체시켜 사용하겠다.

유동준(1983:54)²⁾ 또한 단위명사에 관련된 네 가지 수 표현을 (5)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사가 개체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사와 호응 관계를 맺어야 하며 화용상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명백히 인식한다면 단위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커피를 ‘잔’으로 한다는 정보가 두 사람의 담화 공간에 이미 등록된 것이라면 말하는 이가 ‘커피 하나’라고만 말해도 그것을 듣는 이는 ‘커피 한 잔’으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지 않아도 대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단위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 하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잔’이라는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커피 한 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그 의미를 한층 더 한정화하고 특정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5) ㄱ. 명사 - 수사 - 단위명사

ㄴ. 명사 - 수사 - ∅

ㄷ. 수사 - 단위명사 - 명사

ㄹ. 수사 - ∅ - 명사

우형식(1998:69)³⁾은 단위명사에 의한 명사의 수량화 구성 요소를 명사, 수관형사, 단위명사의 통합 순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위명사에 의한 수량 표현 형식을 유형화하면 아래 (6)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구성으로 나뉘며 (6ㄱ)에 해당하는 후행 구성인 ‘명사-수관형사-단위명사’가 가장 전형적인 수량화 형식으로 보편적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6ㄱ)과 (6ㄴ)을 비교하여 보면 대상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6ㄱ)에서는 부류성을 띠고 (6ㄴ)에서는 부분의 집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6ㄱ)은 수량사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어서 수량 표현이 강조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6ㄴ)은 명사에 의미가 치중되어 한정된 대상만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2) 유동준(1983)은 그의 연구에서 ‘개, 갑, 잔, 마리, 송이...’와 같은 ‘단위명사’를 ‘분류사’라 칭하고 대상 명사를 개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3) 우형식(1998)은 그의 연구에서 ‘단위명사’를 ‘분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상 명사에 개체적 속성을 부여하여 수량화할 뿐만 아니라 대상 명사들을 의미적으로 범주화한다’고 정의하였다.

(6) 단위명사에 의한 수량화 구성

- ㄱ. 후행구성: 명사 - 수관형사 - 단위명사
- ㄴ. 선행구성: 수관형사 - 단위명사 - 명사
- ㄷ. 단일구성: 수관형사 - 단위명사

수량 표현 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한국어의 수량 구성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명사 - 수사 [Nouns-Numerals(N-Num)]

- ㄴ. 명사 - 수사 - 단위명사

[Nouns - Numerals-Counter words(N-Num-C)]

- ㄷ. 수사 - 명사 [Numerals - Nouns(Num-N)]

- ㄹ. 수사 - 단위명사(의) - 명사

[Numerals - Counter words(의) - Nouns(Num-C(의)-N)]

(7)에서 사용한 기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하면 N은 Nouns의 약자로 ‘명사’를 뜻하며 Num은 Numerals의 약자로 ‘수사’를 의미한다. C는 Counter words로 ‘단위명사’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N-Num’이라 함은 명사와 수사의 결합 구조로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한국어 수량 구성을 이야기할 때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N, Num, C’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7)의 한국어 수량 구성 유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단위명사가 없는 구성 (7ㄱ)은 ‘여자 둘, 남자 셋...’과 같이 주로 목록을 나열할 때 사용되며 (7ㄷ)은 ‘두 여자, 세 남자...’과 같이 명사가 사람이면서 고유어 수사일 때 주로 쓰여 그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가장 제약이 없이 널리 쓰이는 유형은 (7ㄴ)이며 (7ㄹ)은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고 제목과 같이 전체를 한 단위로 인식할 때 사용된다. 또한 (7ㄹ)에서 보이는 관형격 조사 ‘의’의 출현 문제에 관해 신호철·이연희(2009:216)은 수사과 단위명사, 관형격 조사 ‘의’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대상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한정해주는 것으로 보고 대상 명사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표시되기 위해서 관형격 조사 ‘의’가 첨가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7ㄴ)과 (7ㄷ)이 서로 호환이 되어 사용 가능하지만 두 구성이 해석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과 ‘한 권의 책’을 비교하여 보면 대상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이 ‘책’으로 공통되지만 ‘책 한 권’에서는 수량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 권의 책’에서는 지시하는 대상 명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수량을 묻는 의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책 한 권 읽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7ㄴ)과 (7ㄷ)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동반하여 실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8) N-Num-C

- ㄱ. 친구 두 명이 왔다.
- ㄴ. 커피 다섯 잔을 마셨다.
- ㄷ. 나무 네 그루를 심었다.
- ㄹ. 장미꽃 열 송이를 샀다.
- ㅁ. 한국에 온 지 세 달이 되었다.
- ㅂ. 한국에 온 지 삼 개월이 되었다.

(8)는 ‘N-Num-C’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8ㄱ)에서 주어 ‘친구’는 사람이므로 단위명사 ‘명’을 사용하고 (8ㄴ)에서는 주어가 액체의 의미 자질을 가지므로 ‘잔’을 사용하여 단위를 계량화했다. (8ㄷ)과 (8ㄹ)의 경우 주어가 식물이라는 공통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나무의 경우 ‘그루’로, 꽃의 경우 ‘송이’를 사용하여 단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수사와 단위명사 호응에는 제약이 따른다. 한국어 단위명사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종류가 나뉘며 수사 역시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뉜다. 그리고 어원별 단위명사 사용에 따라 결합되는 수사 사용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8ㅁ)과 (8ㅂ)을 살펴보면 분명 의미가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8ㅁ)은 고유어 수사를, (8ㅂ)은 한자어 수사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 시 어원에 따라 선택 가능한 수사 사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아래 <표 2>를 통해 수사와 단위명사의 결합이 뚜렷한 형성 기준에 의해 실현되는 것

이 아니며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하기에 앞서 이 표에서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면 SNum은 Sino-Korean Numerals로 한자어 수사에 해당되며 NNum은 Native-Korean Numerals로 고유어 수사를 나타낸다. SC는 Sino-Korean Counter words로 한자어 단위명사를 뜻하며 NC는 Native-Korean Counter words로 고유어 단위명사를, FC는 Foreign Language Counter words로 외래어 단위명사를 의미한다.

〈표 2〉 어원에 따른 한국어 수사 - 단위명사 결합 형식

분류	결합 형식	예
ㄱ	한자어 수사 - 한자어 단위명사 [SNum - SC]	지하철 일 호선, 임신 칠 개월
ㄴ	한자어 수사 - 고유어 단위명사 [SNum - NC]	이자 오 푼, 교재 구 쪽
ㄷ	한자어 수사 - 외래어 단위명사 [SNum - FC]	워크북 사 페이지, 생수 오 리터
ㄹ	고유어 수사 - 한자어 단위명사 [NNum - SC]	수박 두 통, 노래 다섯 곡
ㅁ	고유어 수사 - 고유어 단위명사 [NNum - NC]	김치 세 포기, 양말 한 켤레
ㅂ	고유어 수사 - 외래어 단위명사 [NNum - FC]	연필 한 다스, 맥주 두 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와 단위명사 결합 형태는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인다. 어떠한 단위명사는 고유어 수사와만 결합하고 어떠한 단위명사는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한다. 그러나 각각의 어휘 선택이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균형이 존재하며 그 균형이 깨지면 의미적으로 비문이 될 수 있다. 즉 ‘SNum-SC’의 예 중 ‘지하철 일 호선’에서 한자어 수사 ‘일’ 대신에 고유어 수사 ‘하나’로 교체되어 ‘*지하철 하나 호선’으로 표현될 수는 없으며 반대로 ‘NNum-SC’의 예 ‘노래 다섯 곡’에서 고유어 수사 ‘다섯’을 한자어 수사 ‘오’를 사용하여 ‘*노래 오 곡’이라 사용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제약 관계는 고유어 단위명사와 한자어 단위명사 외에 외래어 단위명사에도 적용되며 한국어의 수사와 단위명사의 공기 관계는 어휘 선택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Num-C(의)-N

- ㄱ. 두 명의 학생을 만났다.
학생 두 명을 만났다.
*두 명 학생을 만났다.
- ㄴ. 세 병의 소주를 마셨다.
소주 세 병을 마셨다.
*세 병 소주를 마셨다.
- ㄷ. 다섯 대의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다섯 대가 있다.
다섯 대 자전거가 있다.

(9)를 통해 ‘Num-C(의)-N’가 ‘N-Num-C’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예문을 살펴보면 (9ㄱ)에서 ‘두 명의 학생’은 ‘학생 두 명’으로, (9ㄴ)에서 ‘세 병의 소주’는 ‘소주 세 병’으로 바꾸어 표현하여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9ㄱ)과 (9ㄴ)에서 관형격 조사 ‘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반해 (9ㄷ)의 예문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나타나지 않고 표현될 수도 있다. 즉 ‘Num-C(의)N’에서 관형격 조사 ‘의’ 사용 선택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수의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3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현황 분석

효과적인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명사 교육 현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7개 대학 기관에서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급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았다. 이 교재들은 대상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내용으로 구성된 통합형 교재들이다. 교재의 내용 분석에는 어휘 자료를 중심으로 단위명사 어휘의 수와 제시 형태 및 방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물론 교재

분석 시 각각의 교재에서 다루는 어휘 자료가 구어 자료인지, 문어 자료인지, 어떠한 상황과 주제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는지, 또 그에 따라 어떠한 언어활동을 제공하였는지 분석될 수 있으나 이 장에서 교재 분석의 목적은 초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단위명사 어휘의 수와 제시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각 교재별로 단위명사 어휘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명사와 수사, 단위명사의 결합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어휘 추출 기준은 본문의 새 단어와 교재 뒷편에 나와 있는 색인 외에도 워크북, 듣기 지문에 실려 있는 단위명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사람, 층, 갑…’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제시된 자립명사도 단위명사 목록으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 층, 갑…’과 같은 어휘의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과 어울려 쓰일 때 이들 모두 단위성을 획득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어휘들이 자립명사로 처리되고 있지만 용법상 구분하여 단위의 기능을 획득한 어휘로도 정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자립명사 ‘갑’의 경우를 한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갑05 「명사」

「1」 물건을 담은 작은 상자.

㉮ 이 시계를 빈 갑에다 넣어라.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작은 물건을 ‘「1」’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담배 한 갑/분필 세 갑.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립명사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수량 단위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라는 문법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순수 단위명사뿐만 아니라 단위성을 갖고 있는 자립명사도 단위명사의 범주에 두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교재 분석을 통해 발췌한 단위명사 목록을 제시할 때 어휘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앞서 나온 명사를 다시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즉 초급 1과에서 나온 단위명사가 2과, 3과에서 다시 등장할 경우 2과, 3과에서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표 3〉 한국어 교재 목록

대학기관명	교재명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1, 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 2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New 서강 한국어 1A, 1B, 2A, 2B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말하기 쉬운 한국어 1, 2, 3, 4
연세대학교 출판부	100시간 한국어 1, 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1, 1-2, 2-1, 2-2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2

위 교재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들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은 명확한 교육 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교재 편찬 기준이 없으므로 출판하는 기관에 따라 한국어 교재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각 교재별로 한국어 단위명사 어휘의 수와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교재 분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재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이때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ㄱ. 경희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에서 출판한 초급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두 권으로 나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학문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대학 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한 권당 18과로 이루어지며 단원 시작에 앞서 사진을 보고 배우게 될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단원의 학습 순서가 관련 어휘와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단원 당 세 번의 대화문을 제시하여 어휘와 문법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대화문은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되었다.

1권의 11과 ‘생일’을 주제로 하는 단원에서 생일 선물을 결정하고 물건을 사는 상황을 통해 단위명사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에서 제시된 단위명사는 16개 정도이며 그 종류는 고유어와 한자어 단위명사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이나 단위명사를 사용한 수량 표현 구성 방법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그림과 각 그림에 해당하는 단위명사 어휘를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꽃과 포도 그림 옆에 ‘송이’라고 제시하거나 노트북과 자동차 그림 옆에 ‘대’라고 제시하는 형식이다. 또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CD를 세는 단위 ‘장’이 단위명사 어휘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사람이 모여 있는 그림 옆에 ‘명/사람(분)’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명’과 ‘사람’ 그리고 ‘분’ 쓰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문법 학습 단계에서 수사와 단위명사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히 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수량 표현 시 단위명사 어휘에 따라 결합 가능한 수사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 단위명사를 모두 제시한 반면 수사는 고유어만을 다루었다. 결합되는 수사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한, 두, 세/석, 네/넛’이라고 보기를 주고 후행하는 단위명사로 ‘살, 개, 장, 잔, 병, 그릇’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때 각각의 단위명사에 해당되는 대상 명사는 다루지 않고 ‘Num-C’만을 제시한 뒤 문제 풀이 과정에 ‘Num-C’만 연습하도록 진행하는 점은 단위명사와 대상 명사의 결합 구조를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나올 수 있다. 즉 지시되는 명사마다 단위명사 사용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Num-C’ 연습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이 ‘한 장’이라는 표현은 익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위명사 ‘장’이 쓰일 수 있는 대상 명사로 무엇이 사용될 수 있는 지 간과할 수 있으며 사용 어순에 있어서도 ‘N-Num-C’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표 한 장’이라는 표현을 ‘한 장 우표’와 같이 잘못 표현하게 될 수도 있다.

교재를 계속 살펴보면 고유어 수사를 사용하여 ‘Num-C’를 배우고 난 뒤 다음 단계 듣고 말하기 부분에서 한자어 단위명사 ‘월’과 ‘일’을 제시된다. 문제는 앞서 학습자들은 고유어 수사와 단위명사 결합만을 배운 상태에서 4라는 숫자가 앞서 ‘네’ 혹은 ‘넛’이라고 배우다가 갑자기 ‘사’라고 읽어야 하는 상황에 혼란스러울 있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들은 앞서 ‘Num-C’를 사용하여 고유어 수사와 단위명사의 사용 결합을 익혔을지 모르나 언제 고유어 수사로 읽어야 하는지 한자어 수사로 읽어야 하는지 충분히 혼동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읽고 쓰기 단계에서는 단문의 글이 제시되는데 수사와 단위명사 표기가 ‘친구 2명’, ‘자동차 20대’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초급 학습자들이 ‘친구 이 명’, ‘자동차 이십 대’ 혹은 ‘자동차 스물 대’와 같이 고유

어와 한자어 수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말하기 연습 단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면 학습자들의 발화 연습을 통해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고유어 수사와 단위명사의 결합 유형만을 배운 학습자들이 과연 읽고 쓰기 단계에서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를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4〉 경희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1	1	한국어와 한글	년, 자	34
	2	예비편1	개, 쪽	
	5	예비편4	분(分)	
	6	예비편5	초, 호, 층	
	7	안녕하세요?	번, 사람	
	8	이것은 뭐예요?	동	
	11	생일이 언제예요?	월, 일, 장, 병, 송이, 마리, 명, 분(사람), 권, 잔, 대, 그릇, 살, 원, 시	
	12	4시에 만납시다	시간, 주, 년, 달	
	13	축제가 재미있었어요	줄	
	14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인	
	15	주말에 생일파티에 갈 거예요	판	
18	어디로 엠터를 갈까요?	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2	3	어젯밤에 벼락치기 했어요	가지, 등, 교시, 점, 급	27
	4	전화 받으세요	개월, 호, 동, l(리터)	
	5	어떻게 해요?	세	
	6	늦으면 안 돼요	회, 매, %(퍼센트), 석, 장, 열	
	7	무슨 일 있었어요?	위	
	10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적이 없어요	벌	
	12	한국 요리 할 줄 알아요?	쪽, m(미터), 점	
	13	이 치마를 입어 봐도 돼요?	치, mm(밀리미터)	
	14	저는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g(그램), 통, 봉지	
	15	주변이 조용한 원룸이면 좋겠어요	m ² (제곱미터)	

ㄴ.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 간행한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초급 과정이 두 권으로 워크북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한 권당 15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개의 단위명사를 제시하였는데 물건 사기 주제에서 주로 단위명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명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은 3과에서 시작되며 학습 도입 단계에서 물건 사기 상황을 통해 대화문이 제시되어 어떻게 단위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제시되는 단위명사는 ‘개’와 ‘병’, ‘원’ 같은 기초 어휘이며 ‘N-Num-C’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단위명사 개별 어휘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에서 배우게 되는 ‘빵’, ‘우유’, ‘라면’과 같은 대상 명사 어휘를 익힌 후에 이에 맞는 단위명사를 배우는 방식이었다. 수를 세어보는 연습을 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하나, 둘, 셋...’을 배우고 단위명사 ‘개’와 결합 시 ‘하나’가 ‘한 개’로 표현되고 ‘둘’이 ‘두 개’로 표현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수사는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처럼 고유어 수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어 수사도 있다. 또한 단위명사 어휘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존재하는데 이 교재의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는 고유어 수사와 단위명사 구조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렇다보니 제시되는 단위명사 어휘에 있어서도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개’, ‘병’, ‘명’만을 교육 대상 어휘로 삼고 있었다.

또한 학습 마지막 단계에서 단위명사 어휘를 ‘수량 명사’라고 하여 ‘-그릇’, ‘-잔’, ‘-마리’ 형식으로 제시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해 놓았다. 위와 같은 어휘들이 수사와 결합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조적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단위명사 ‘개’는 수사와 쓰일 때 ‘한 개’로 표현되며 ‘한 개’ 앞에 선행 요소로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내면 ‘사과 한 개’로 실현됨을 외국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위명사의 구조적 사용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재들과 달리 큰 특징으로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수를 표현할 때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표 5〉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재미있는 한국어1	1	자기소개	사람	33
	3	물건 사기	개, 병, 원, 명, 마리, 잔, 권, 그릇	
	4	일상생활2	시, 분(分)	
	5	위치	m(미터), 층	
	6	음식	인	
	7	약속	일, 월, 시간	
	8	날씨	°C(섭씨)	
	9	주말 활동	주, 해, 년, 달	
	10	교통	호, 번, 분(사람)	
	12	취미	주일	
	14	우체국·은행	리, 달러, 유로, 엔, 위안	
15	약국	알, 회		
재미있는 한국어2	1	자기소개	개월, cm(센티미터)	8
	3	날씨	%(퍼센트)	
	7	외모·복장	세	
	9	기분·감정	급, 등	
	10	여행	박	
	13	도시	km(킬로미터)	

㉔. 서강대학교 『New 서강 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펴낸 『New 서강 한국어』 교재의 경우 초급 단계가 1A, 1B, 2A, 2B,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록으로 문법 및 단어 참고서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워크북이 따로 존재한다. 각 단원의 구성이 학습 목표가 제시되고 문법과 대화가 말하기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교재보다 말하기 연습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단원 정리 부분을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문이나 예시 자료들이 구어적 표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재는 교실 수업용 교재로 다양한 활동과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출판되었다.

4권의 초급 단계 교재에서 단위명사는 총 36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 구성 상 학습의 본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를 갖고 이때 단위명사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맥이나 구조적인 설명 보다는 몇몇 명사 사진과 그에 해당되는 단위명사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경, 책, 사람 사진을 놓고 ‘안경(개), 책(권), 친구(명)’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이고 각 언어마다 단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한국어 단위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이 사진을 통한 어휘 노출을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안경을 한 쌍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어는 한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단위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고유어 단위명사 ‘개, 명, 병, 권’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휘들이 어떻게 수사와 결합하는지 구조적인 사용 부분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교재 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사 사용 문제에 있어서 ‘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을 사용해야 하는지 학습자들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물론 교재 특성상 별책 부록으로 나온 문법 및 단어 참고서에 고유어 수사에 관한 설명이 외국어로 실려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수를 배우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학습의 마지막 부분인 단원 정리에서 ‘하나, 둘, 셋...’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취할 경우 학습자들은 단위명사를 습득했음에도 교재에 실려 있는 안경이 여러 개 놓인 사진을 보고 ‘세 개’인지 ‘셋 개’인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수량 표현에 대한 학습 순서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위명사 ‘개’를 활용하여 몇몇 대상 명사 어휘를 보기로 주고 ‘Num-C’를 연습한 뒤 ‘N-Num-C’를 학습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재 구성 자체가 연습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교재를 통해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과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6〉 서강대학교 『New 서강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New 서강 한국어 1A	준비1	반갑습니다	사람	18
	준비3	커피 주세요	컵, 개, 명, 병, 권, 장	
	1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번, 원, 일, 일	
	2	어디에 가요?	시, 시간, 분(分)	
	4	어제 학교에 안 갔어요	주	
	5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층	
	6	서강대학교에 어떻게 가요?	호, 번	
New 서강 한국어 1B	1	내일 여행 갈 거예요	달	7
	2	이 옷을 입어보세요	g(그램), 분(사람)	
	3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년	
	4	수영할 줄 알아요	세, 주일	
	7	한국 음식을 먹어 봤어요	인	
New 서강 한국어 2A	6	여기 앉아도 돼요?	그릇	8
	7	무슨 색으로 보여 드릴까요?	마리, kg(킬로그램)	
	8	뭐 드시겠어요?	mm(밀리미터), 손가락, 가지	
	9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 주세요	점, 페이지	
New 서강한 국어 2B	4	큰형은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살	3
	5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해야 해요	잔	
	7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해	

ㄹ.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 발행한 『말하기 쉬운 한국어』는 초급 단계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각 교재마다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원을 2개의 단위로 나누어 출판되었다. 초급 단계 교재에서 모두 54개의 단위명사가 제시되어 있으며 시간 표현 및 물건 사기 주제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단위명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명사 학습은 8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 단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배경 지식이나 문맥, 상황 제시 없이 본문 시작부터 많은 양의 단위명사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그림을 제시한 뒤 그림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와 단위명사가 사이에 빈칸을 두고 개수를 채워 넣도록 하는 형식이다. ‘우유 () 개, 컴퓨터 () 대, 사진 () 장...’ 등 도입부터 한 페이지에 아주 많은 양의 단위명사를 노출시키고 있었으며 동시에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를 표로 제시해 놓고 있었다. 이렇게 아무런 문맥이나 상황을 주지 않고 다량의 어휘를 단위 도입부터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단위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를 세는 단위 ‘단’이나 배추를 세는 단위 ‘통’과 같은 어휘들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단원의 학습을 회피해버리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으며 학습 도중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물론 이 교재에서 많은 양의 단위명사 어휘가 제시되었던 만큼 다른 교재들과 달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단위명사가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지만 한 단위에서 18개의 단위명사 어휘가 동시에 학습되는 점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명사의 개념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반면 학습자들이 단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삽화가 실려 있으며 대화문에서 사용되는 수량 표현은 ‘N-Num-C’에 따라 제시되고 있었지만 ‘3자루, 10장...’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이 대화문에서 제시된 ‘3자루’라는 표현을 ‘세 자루’로 읽어야 할지 ‘삼 자루’라고 읽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량 표현 시 어떠한 수사 체계에 따라 한국어 수를 읽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개별 단위명사 어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수사 사용 선택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류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표 7〉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말하기 쉬운 한국어 1	1	인사	쪽	31
	2	자기소개	사람	
	6	일주일	시	
	7	숫자	%(퍼센트), °C(섭씨), m(미터), 초, 번, 동, 층, 호, 년	
	8	슈퍼마켓	개, 권, 대, 마리, 켈레, 분(사람), 명, g(그램), 원, 송이, kg(킬로그램), ml(밀리리터), l(리터), 자루, 봉지, 병, 장	
	9	스티브의 하루	분(分), 초	
말하기 쉬운 한국어 2	1	전화	살, 세	14
	3	주문	인, 원, 판, 그릇	
	4	교통수단	일	
	6	계획	m(미터), 월	
	10	취향	잔, 시간, 곡, 편, cm(센티미터)	
말하기 쉬운 한국어 3	1	명절	달	9
	2	예절	개월, 위	
	5	영화	석(seat)	
	6	쇼핑	치(인치), 박	
	10	우체국	t(톤), mm(밀리미터), km(킬로미터)	

㉑.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연세대학교에서 인정한 『100시간 한국어』는 몇몇 다른 대학 기관 교재들처럼 초급 단계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25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원은 단원명, 학습 목표, 듣고 연습하기, 어휘, 발음연습, 주요 문법, 과제와 활동, 문법 설명, 문화 그리고 어휘 분법과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의사소통 기능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어휘는 주제별로 꼭 알아야 할 어휘를 선정하여 다루었는데 이때 외국어로 번역을 달아 어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 총 46개의 단위명사가 제시되었고 1권의 8~9과에서 단위명사를 학습이 시작된다. 한국어 수사를 어원별로 나누어 한자어 수사를 먼저 배우고 난 뒤 고유어 수사를 학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8과에서 단위명사가 노출되지만 이 과의 내용 자체가 단위명사 학습이 아니라 수사 학습에 초점을 두었으며 단위명사에 대한 학습이 9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8과 수사를 학습할 때 각각의 수를 한글로 표기하여 제시되었으나 9과 'Num-C'를 학습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예문이 제시되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량 표현을 학습할 때에 먼저 수사 사용을 익히고 난 뒤 단위명사 연습으로 이어질 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9과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한국어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이나 사용 구조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책 세 권'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고 학습자들은 '세 책 권'으로 표현해야 할지 '책 권 세'로 표현해야 할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표현하는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물론 교재 대화문이 'N-Num-C'를 사용하여 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어 단위명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과제와 활동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단위명사 어휘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 마지막 단계에서 단위명사와 대상 명사를 표로 제시하여 해당 단위명사에 맞는 대상 명사를 학습자들이 기입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단위명사 '개'는 해당 대상 명사 어휘로 '물건'이라 적고 '장'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 어휘로 '종이, 우표'로 적어 표를 완성하는 형식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칫 단위명사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대상 명사에 대한 어휘 학습으로 그 목적이 전도될 수 있다. 또한 미리 제시되어 있는 보기의 예에서 단위명사 '개'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가 '물건'으로 적혀있는 점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물건'이라는 어휘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커피 한 개'라는 오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명사가 실현되는 구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 어휘를 표로 나열하여 제시할 경우 학습자들은 각각의 단위명사가 어떠한 수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며 어순 문제에 있어서도 대상 명사, 수사, 단위명사가 어떻게 실현되는 지 간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표 8〉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100시간 한국어 1	1	안녕하십니까?	사람	33
	4	경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사람)	
	6	어디에 가십니까?	호	
	8	얼마입니까?	개, 원, 년, 월, 일, 쪽, 시, 분(分)	
	9	몇 켈레 드릴까요?	켈레, 잔, 병, 마리, 송이, 권, 대, 인, 장, 자루, 살, 갑, 번, 통, 벌, 층, 시간, 주일, 달	
	13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해	
	20	비행기표 받았어요?	주	
21	감기에 걸렸어요	가지		
100시간 한국어 2	5	기숙사 생활이 어때요?	세	13
	7	어디들 가세요?	cm(센티미터)	
	8	이 치마 좀 바꾸러 왔는데요	명	
	9	이 수박 어떻게 해요?	통	
	11	잡채 만들 줄 아세요?	g(그램), 포기, ml(밀리그램), 컵	
	16	네, 중국집입니다	동	
	19	소나기가 올 모양이에요	℃(섭씨), %(퍼센트), mm(밀리미터)	
21	어디가 아프세요?	정		

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는 『이화 한국어』로 초급 단계가 1-1, 1-2, 2-1, 2-2,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1-1권과 2-1권은 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1-2권과 2-2권은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원을 Part 1, 2, 3으로 나누어 학습이 진행되며 한 단원이 시작될 때마다 사진 자료를 실어 단원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1, 2 단계에서는 2~3개의 문법 항목과 어휘를 학습한 뒤 말하기 연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문법을 학습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문법의 쓰임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때 외국어로 번역문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Part 3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사항을 듣기와 읽기, 쓰기를 통해 익히도록 학습이 진행되었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4권의 교재에서 단위명사는 총 54개가 제시되어 있고 1-2권 8과에서 물건사기 주제를 통해 단위명사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원에서는 한국어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해 놓았으며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수량 표현 유형 중 하나인 ‘N-Num’가 단위명사와 결합할 경우 어떻게 ‘N-Num-C’로 바뀌어 사용되는 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 제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 하나 + 명 → 학생 한 명’과 같이 제시되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위명사 실현 구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단위명사 어휘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사람 그림은 ‘명’을 동물 그림은 ‘마리’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몇몇 그림이 제시되고 이에 해당하는 단위명사를 표로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난 뒤 연습 단계에서 ‘빵 1, 주스 3...’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학습자들에게 ‘빵 한 개, 주스 세 병’으로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단위명사와 적절한 수사 사용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량 표현 시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를 주로 다루었으며 외래어 단위명사가 이 단원에서 노출되고 있음에도 그 결합 형태나 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부분이 없었다. 예를 들어 이 단원에서 노출되고 있는 외래어 단위명사 ‘m(미터)’, ‘kg(킬로그램)’과 같은 어휘의 경우 수사 사용 시 한자어 수사와 결합되어 실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1m’, ‘1kg’과 같은 표현을 ‘한 미터’ 및 ‘한 킬로그램’과 같이 오류를 생산할 수도 있다.

〈표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이화 한국어 1-1	2	소개	사람, 층, 호	21
	3	학교생활	일, 월, 시, 시간, 년, 세	
	4	집	쪽	
	5	하루일과	개, 분(分), 분(사람)	
	6	주말	cm(센티미터) 주, 달, 해, 박, 반, 명	
	7	가족	살	
이화 한국어 1-2	8	물건사기	마리, 병, 잔, 켈레, 권, 대(臺), 벌, 송이, 조각, 원, m(미터), 장, 다발, kg(킬로그램)	23
	9	계획	%(퍼센트), 등	
	10	음식	인, 세기	
	11	교통	m(미터), 번	
	12	날씨	°C(섭씨)	
	13	전화	주일	
	15	취미	대(代)	
이화 한국어 2-1	1	첫 만남	개월	6
	2	한국생활	mg(밀리그램)	
	3	음식과 생활	술, g(그램), 포기	
	5	경험	위	
이화 한국어 2-2	8	외모	손가락, 단, 급	4
	13	이웃과 집	곡	

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출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학습자용 교재는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35과의 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권의 경우 40과로 단원으로 편성되었다. 두 권의 교재 전반에 걸쳐 총 49개의 단위명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위명사 학습은 1권의 8과에서 시작된다. 이 교재의 출판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작된 말하기 수업용 교재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화제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위명사 학습이 이루어지는 8과를 살펴보면 단위명사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고유어 수사와 의문 관형사 ‘무슨’과 ‘몇’을 사용하여 위치와 수량을 익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 교재의 문법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문법과 어휘를 분리하여 외국어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위명사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기보다는 의문 관형사 ‘몇’을 사용한 의문문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때 사용되는 항목이 단위명사이며 그 예로 ‘개, 장, 명, 마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한국어 수를 교육할 때 학습자들이 고유어 수사의 변이 형태를 인지하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수사를 배울 때 아라비아 숫자 ‘1’을 ‘하나’라는 표현으로 익히기 시작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고유어 수사가 단위명사를 수식할 때 그 형태가 바뀌는 점을 ‘1 - 하나 + 개 - 한 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단원에서 수량 표현 교육 시 학습자들의 올바른 수사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위명사에 대한 학습의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단위명사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유어 수사만을 다루기 때문에 고유어 수사와 결합이 가능한 단위명사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 단원의 연습 단계에서 사과 그림은 ‘개’로, 강아지 그림은 ‘마리’로 연결하는 선긋기 활동을 통해 단위명사 학습이 아주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고유어 수사와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Num-C’를 익힐 수 있으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상 명사와 수사, 단위명사의 공기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Num-C’에 초점을 두고 단위명사 교육이 이루어지면 학습자들은 선

행하는 대상 명사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단위명사 어휘 선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간과하고 ‘학생 다섯 개’, ‘강아지 다섯 개’ 등과 같은 오류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

〈표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목록

교재명	단원	단원명	단어	합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4	교실입니까?	사람	39
	5	고향은 어디입니까?	분(사람)	
	8	몇 개 있습니까?	개, 명, 장, 마리, 컵, 접시, 송이, 권, 잔, 대, 벌, 그루, 자루, 켈레, 채, 병	
	9	어느 식당이 좋습니까?	cm(센티미터)	
	11	무슨 약속입니까?	시간, 시, 분	
	12	얼마예요?	달, 원	
	13	수영을 잘 해요?	주일	
	14	어제 뭘 했어요?	층, 년	
	15	누구한테서 배워요?	주	
	17	여기 순두부를 둘 주세요.	급, 반	
	19	파티에 같이 가요	일, 월, 년, 해	
	21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번	
	29	비행기로 갔어요?	조(組)	
	30	제주도는 어땠어요?	박	
	31	어디에서 샀어요?	개월	
34	요즘은 큰 옷이 유행이에요	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	1	어느 쪽으로 가요?	호	10
	3	자 드세요	살	
	7	하루에 세 번 이 약을 드세요	가지	
	8	감기 조심하세요	교시	
	10	일기예보를 들어볼까요?	%(퍼센트), °C(섭씨)	
	15	저기에서 내려 주세요	바구니	
	20	오랜만이에요	m(미터)	
	28	생일선물로 뭐가 좋아요?	kg(킬로그램)	
39	아직 멀었어요	km(킬로미터)		

지금까지 7개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해 편찬된 교재로 각각의 교재에 실려 있는 단위명사 어휘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때 단위명사 어휘의 수와 제시 방법에 중점을 두고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각 교재별로 다루고 있는 어휘의 양이 한 단원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위명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은 물건사기 주제를 두고 이루어졌으나 실제 생활에서의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의 단위명사를 노출시키기는 점은 문제가 될 만하다. 물론 물건사기 주제를 통해 각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단위명사 ‘개, 권, 대, 마리, 장, 잔, 송이, 원’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중 빈도수가 아주 높은 A등급 혹은 B 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들이지만 ‘다발, 자루, 켈레, 밀리리터’와 같은 어휘들은 학습용 기본 어휘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위명사였다.

또한 제시된 어휘의 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종류에 있어서도 고유어 단위명사와 한자어 단위명사만 다루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고유어 수사와 결합 가능한 단위명사만을 다루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렇다보니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는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주요 등급에 해당하는 ‘달리, 킬로미터, 퍼센트’와 같은 외래어 단위명사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생수 1리터’, ‘쌀 5킬로그램’과 같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외래어 단위명사를 사용한 표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단위명사 어휘 수와 종류 문제 외에도 각 교재마다 단위명사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위명사를 학습할 때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 명사처럼 어휘를 개별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었다. 한국어 단위명사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관계에 따라 사용 어순에 영향을 받고 수사와 결합할 때에도 어원에 따라 선택 제약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위명사를 개별 어휘로 제시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구조적인 사용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몇몇 교재에서 ‘Num-C’를 사용하여 단위명사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들은 각각의 단위명사와 결합 가능한 대상 명사 사용 선택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위명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위명사가 교육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를 학습하고 난 뒤 단위명사를 배우게 되는데 교재에 표기된 숫자 사용의 문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몇몇 교재에서 단위명사 학습 시 과도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 대상자가 초급 단계이며 한국어의 수 체계를 배웠다 하더라도 아직 수를 읽는 것이 서투를 수 있다. 즉 지나치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단위명사가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은 이 수를 고유어로 읽어야 하는지 한자어로 읽어야 하는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는 숫자 표기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교재들은 단위명사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언어마다 단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한국어와 동일한 단위명사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어휘가 존재하여도 구성 요소와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단위명사는 『어문규정집』에 따르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이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문제를 인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모든 언어가 띄어쓰기 규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규칙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단위명사 사용 시 반드시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수량 표현을 교육할 때 'N-Num', 'Num-C' 그리고 'N-Num-C'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2장을 통해 알아보았고 앞서 'Num-C' 사용 문제는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재에서 수량 표현 교육 시 'N-Num'과 'N-Num-C' 사용 문제를 두고 어느 것을 가르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이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N-Num-C'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채완(1983:26)에 따르면 'N-Num'를 'N-Num-C'보다 고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류의 명사는 수사의 크기에 관계없이 'N-Num-C'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 가장 중립적인 표현은 'N-Num-C'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급 학습자에게 고행을 위주로 가르치기 보다는 널리 사용되는 유형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어떻게 'N-Num-C'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Ⅲ. 단위명사 학습에서의 전이와 간섭 현상

효율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든 언어에는 수량 표현이 존재하고 이때 사용되는 단위의 개념과 쓰임이 한국어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충분히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영실(1988:5)에 따르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과거의 언어 습관을 무시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자료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철저히 비교하여 서로가 충돌이 되는 점을 강조시킴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학습자가 외국어에 접할 때 모국어와 목표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 기제를 밝히기 위해 비교 및 대조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언어의 구조들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대조분석의 유용성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Fries나 Lado 등이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강현화 외(2003:47)는 이러한 대조분석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대조분석은 가르쳐야 할 규칙의 선정에 근거를 제공하며 등급을 위한 근거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 2언어 교재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 둘째, 대조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사는 교재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2언어 교재 제시에 도움을 준다. 셋째, 초기 학습자는 먼저 모국어로 생각하고 제 2언어로 표현하려하기 때문에 대조분석 지식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넷째, 평가 항목의 선택과 선다형 문항들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 2언어 평가에 도움을 준다.

외국어 학습 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습관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방해가 되어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두 언어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겪게 될 난점을 미리 예측해 본다면 오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비교 및 대조해 봄으로써 두 언어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살펴보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을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언어는 완전히 다르고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 시 모국어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가 흔히 모국어의 습관을 한국어에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때 교사가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들이 겪게 될 학습상의 난점을 미리 예측해 낼 수 있다. 또한 비교 및 대조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한국어 학습 지도 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우형식(1999:306)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 유사한 언어 현상은 쉽게 습득되고 상이한 언어 현상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외국어 교육학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전자를 긍정적 전이, 후자를 부정적 전이 혹은 간섭이라고 지칭하였다.

전이(Transfer)는 이전의 지식이나 경험이 이후의 학습에 옮겨지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전에 배운 것이 현재 학습하는 내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켜 긍정적인 전이라고 한다. 반면 이전의 지식이 이후의 과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부정적 전이라고 하는데 이를 간섭(Interfere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 배운 항목이 잘못 전이되거나 부정확하게 연관됨으로써 선행 학습 자료가 후행 학습 자료를 간섭하기 때문이다(H. Douglas Borwn 1980:107).

즉 전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습자의 모국어가 학습 목표어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이 현상 가운데 부정적인 전이를 간섭이라고 부른다. 전이는 그 효과 면에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로 나누며 긍정적 전이는 학습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부정적 전이는 학습에 방해가 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복수 표현 시 한국어는 ‘-들’을, 영어는 ‘-s/es’를 접미사로 사용하여 나타낸다.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 복수 표현을 학습할 때 모국어와 같이 영어에서도 접미사를 사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전이가 되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는 보통 수를 표현할 때 후행 명사에 복수 어미를 붙이지 않고 사용한다. 즉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습득할 때 ‘세 학생’을 ‘*three student’로 표현하려하는 간섭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모국어의 지식을 적용시켜 오류를 생산해낼 수 있다. 모국어의 체계에 익숙한 학습자가 외국어를 더 이상 외국어만의 구조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이정화(2011:8)에 따르면 언어는 서로 다르다는 구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구조적 차이에 있다고 하였다. 외국어의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가 흔히 모국어의 습관을 외국어에 적용시키려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조분석의 효용성을 적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한국어 수량 표현 시 느끼는 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위명사를 사용할 때 산출해내는 오류를 파악하여 학습 기제가 언어권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구 진행은 각 언어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이 겪는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의 어려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언어마다 수와 단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 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외국어인 한국어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즉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산출해내는 오류의 유형을 통해서 각 언어권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어떤 구조가 이러한 오류 결과를 조장하는지 한국어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사전 설문조사 대상자는 한국어 학습을 적어도 1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최종적으로 학문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로 삼았다. 또한 한국어 수사와 단위명사를 이미 습득한 외국인 학습자로 언어권별로 중국어·몽골어·영어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언어에 따라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 구성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 사용의 문제를 시작으로 개별 단위명사 어휘 사용에 관한 문제와 다양하게 실현되는 수사과 단위명사 결합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단위명사 띄어쓰기에 관한 인식 여부를 알아보는 문제 그리고 한국어 수량 표현 구성 중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답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대상자와 그들의 설문조사 답변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

하였다. 면담 시 그들이 선택한 답안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왜 그러한 답안을 선택하였는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기초 자료로 삼고 각 언어권마다 수량 구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국어와 대조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언어권별 수량 표현 대조 작업 시 앞서 설문을 통해 얻은 학습자들의 답변 내용을 접목시켜 설명을 할 것이며 이때 사용하게 될 약자로 중국어권 학습자는 CHN(Chinese speaker), 몽골어 학습자는 MON(Mongolian language speaker), 영어권 학습자는 ENG(English speaker)로 나타내며 이때 'CHN1'이라 함은 설문에 참여한 첫 번째 중국어권 학습자를 뜻하고 'CHN2'는 두 번째 설문 대상자를, 'CHN3'은 세 번째 설문 대상자를 나타낸다.

3.1 중국어권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김인균(2004:158)에 따르면 한국어 단위명사는 독립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고 9개의 품사 중 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양사(量詞)라고 하여 하나의 독립된 품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양사(量詞)의 개념에 대해 중국 최초의 어법서인 마건충(馬建忠)의 『馬氏文通』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1) 표사가 아니면서 뒤에 위치하는 것들은 세는 대상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물 중의 보통 명사에는 숫자를 기록하는 다른 호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레는 乘, 말은 匹 등의 부류를 반드시 그 앞에다 놓는다.

또한 중국의 『語言學百科詞典』에 따르면 양사의 정의를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로 현대 중국어에서 수량을 표시할 때 반드시 수사 뒤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물이나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의 양사라고 하였다.

즉 한국어의 단위명사와 유사하고 접근 가능한 범주로 중국어에서는 양사라고 하여 존재하지만 품사적으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단위명사와 비교할 때 양사의 수와 종류에 있어서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어 양사는 홀로 쓰이지 않으며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여 수량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공통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책을 셀 때 쓰는 단위명사 ‘권’은 중국어에서 ‘本’에 해당하고 동물을 세는 ‘마리’의 양사는 ‘头’에 해당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서 중 하나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살펴보면 한국어 단위명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2) 为表达前面出现的数量单位的依存名词

(12)를 ‘해석하면 한국어 단위명사는 단위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단위성이라 함은 앞에 오는 명사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유형 비교

한국어 수량 표현 유형	중국어 수량 표현 유형
N-Num	-
N-Num-C	명사-수사-양사
Num-N	-
Num-C(의)-N	수사-양사(的)-명사
-	지시대명사-양사-명사

<표 11>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유형에서 동일한 점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가 한자어권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항이 존재하고 수량 표현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조가 존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성과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단위명사가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육요(2010:26)에 따르면 중국어의 ‘명사-수사’ 구조와 ‘수사-명사’의 경우 주로 성어나 고문에서만 사용된다고 한다. 정우영·양호(2013:200) 역시 ‘명사-수사’ 구조는 고대 중국어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 사용되었고 지금은 사라진 표현이며 ‘수사-명사’ 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량 표현이며 일부 성어나 속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인균(2004:171)에서는 중국어는 수량 표현 시 어떠한 경우에도 양사가 생략될 수 없다고 하였다.

두 언어권 사이에 일치하는 구조는 ‘N-Num-C’와 ‘Num-C(의)-N’이다. 특히 ‘Num-C(의)-N’에서 한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的’의 사용이 한

국어처럼 수의적이지 않다. ‘的’의 사용 여부에 대해 장리리(2010:34)는 중국어의 ‘수사-양사(的)-명사’ 유형에서 양사가 일반 명사에서 전용된 경우에만 ‘的’를 사용 수 있다고 하였다.

왕소요(2013:53)는 중국어 수량 표현 시 수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양사 앞에 ‘이, 그, 저’와 같은 지시대명사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중국어의 양사는 한국어의 단위명사와 달리 지시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왕슈에(2013:17) 역시 한국어에서 부적절한 ‘지시대명사-단위명사-명사’ 구조가 중국어에서는 가능하며 이때 생략될 수 있는 수사는 ‘1(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13) N-Num

ㄱ. 나는 책 하나, 연필 하나 있다.

我 书 一 铅笔 一 有

*我有书一, 铅笔一。

我有一本书, 一支铅笔。

ㄴ.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었다.

早上 苹果 一 吃了

*早上喝一茶。

早上喝了一杯茶。

(13ㄱ)와 (13ㄴ)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단위명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수량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양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문이 되어버린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어는 수량 표현 시 양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N-Num’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양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의 영향으로 양사 사용에만 의존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CHN1, CHN2, CHN3 모두 중국인 학습자들과 면담 조사 시 한국어 고유어 수사 체계를 익히고 ‘N-Num’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책 하나, 연필 하나...’와 같은 표현을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형식으로만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수량 표현 학습 시 모국어에도 존재하는 동일한 구성만을 사용하려는 편향된 자세를 보이는 부정적 전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14) N-Num-C / 명사-수사-양사

우리 반에 학생 일곱 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세 명 여학생이 네 명 있다.

我们班学生七名有男生三名女生四名有⁴⁾

我们班有七名学生，男生三名女生四名。

(14)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수량 표현 구조에 있어서 일치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이렇게 모국어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권 학습자가 ‘N-Num-C’를 사용하여 수를 표현할 때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설문 조사 시 CHN1과 CHN2는 ‘N-Num-C’가 사용된 문항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13)번 ‘N-Num’ 사용과는 달리 단위명사 개별 어휘의 뜻과 쓰임을 알고 있다면 강아지를 ‘강아지 한 마리’, 형제를 ‘형제 두 명’, 음료수를 ‘음료수 세 병’이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보였다. 다만 CHN2와 CHN3은 한국어 수사 체계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뉜다는 점에서 어느 것은 고유어로 써야 하는지 한자어로 써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수사 체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CHN1과 같은 학습자의 경우 수사 사용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보였다.

(15) Num-N

두 남자는 서로를 싫어한다.

两男人相互厌恶

*两男人相互厌恶。

两个男人相互厌恶。

(15)의 ‘Num-N’은 중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량을 표현하는 경우 양사 사용에 익숙한 중국어권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Num-N’에서도 단위명사 사용을 고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남자’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무의식적으로 ‘두 명 남자’로만 표현함으로써 한국어의 모든

4) 중국어의 경우, 인간성 양사로 ‘个’와 ‘位’, ‘名’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个’는 보편성 양사로 서 인간성 외의 여러 사물과도 호응 관계를 이룬다(우형식 2002:122).

수량 표현을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려 하는 부정적인 전이 현상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사후 면담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CHN1, CHN2, CHN3 모두 ‘두 남자’라는 표현보다는 ‘두 명의 남자’ 혹은 ‘남자 두 명’으로 단위명사를 사용하는 형식으로만 표현하였다. 또한 수사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그 뒤에 단위명사를 나타내는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혼동하기도 했다. 한국어의 수사는 어원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며 ‘1’을 ‘하나’ 혹은 ‘일’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를 표현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실제 CHN2와 CHN3 모두 ‘2일’ 혹은 ‘2cm’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문항을 바르게 읽어보라고 하면 ‘두 일’, ‘두 센티미터’라고 답하는 오류를 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교재 편찬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몇몇 교재에서 수사와 단위명사를 다룰 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어원에 따라 두 가지 수체계가 존재하고 후행하는 단위명사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단위명사와 수사를 학습하는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아라비아 숫자 사용보다는 ‘1개’라는 표현을 ‘한 개’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6) Num-C(의)-N / 수사-양사(的)-명사

ㄱ. 오늘 두 명의 손님이 왔다.

今天 两 位的 客人 来了

*今天来了两位的客人。

今天来了两位客人。

ㄴ. 뜨거운 한 대야의 물을 준비했다.

温 一 盆的 水 准备了

准备了一盆的温水。

(16)을 살펴보면 중국어는 여러 가지 수량 유형 중 ‘수사-양사-명사’ 구조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한국어와 같이 문장에서 관형격 조사 ‘的’의 사용이 제약적이다. 한국어는 단위명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형격 조사 ‘의’의 출현이 자유로운 반면 중국어의 경우 양사가 일반 명사에서 전용된 경우에만 ‘的’의 사용 가능하고 그 외에는 양사와 조사 ‘的’는 직접 결합할 수 없다. (16ㄱ)과 (16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ㄴ)은 (16ㄱ)과 달리 ‘的’의 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단위명사 ‘대야’에 해

당하는 중국어 ‘罈’은 여기서 양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에서 전이된 차용양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만 ‘的’와 결합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일반명사에서 단위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Num-C(의)-N’를 학습할 때 모국어와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까닭에 긍정적인 전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표현에서 차용양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사와 조사 ‘的’의 결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Num-C(의)-N’를 학습할 때 관형격 조사 ‘의’ 사용을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 CHN1, CHN2, CHN3 모두 사후 면담조사를 실시했을 때 ‘한 컵의 물’, ‘세 병의 소주’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물 한 컵’, ‘소주 세 병’이라고만 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왜 이렇게 한 가지 표현만 선호하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중국어에는 ‘수사-양사(的)-명사’ 구조가 잘 사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으며 수량 표현 시 한국어와 같은 ‘명사-수사-양사’ 구조 사용에 더 익숙하다고 하였다. 즉 모국어와 동일한 구조는 많이 자주 사용하는 반면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피해버리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17) 지시대명사-양사-명사

*이 권 책은 너무 재미있다.

这本书很有意思

这本书很有意思。

중국어 수량 표현에는 (17)과 같이 지시대명사가 양사와 결합하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특이한 유형이 있다. 한국어는 지시대명사가 단위명사와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어는 지시대명사가 양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국어에 존재하는 표현이 목표어에 없는 경우 간접 현상을 일으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그 책 재미있어요?’라는 질문에 CHN1, CHN2, CHN3 모두 ‘네, 이 권 책은 재미있어요.’라고 답을 표시하는 현상을 보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 시 모국어의 영향으로 지시대명사가 단위명사를 수식 가능하다고 보고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한국어 수량 표현에서 지시대명사와 단위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각별히 인지시켜주면 좋을 것이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한자어 문화권임에도 두 언어의 수량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와 어순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이기도 하고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별 어휘의 쓰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어의 경우 ‘사람’을 단위화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사람, 명, 분’을 단위명사로 사용하고 이때 대상 명사의 신분에 따라 선택도 달라진다. 중국어 역시 사람을 셀 때 한국어 ‘분’에 해당하는 단위명사 ‘位’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단위명사 ‘분’의 사용에 대해 크게 어려움을 표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서원(2010:9)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사람을 단위화하는 경우 양사 ‘个’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상의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어의 양사 ‘个’는 한국어의 단위명사 ‘개’와 쓰임이 유사한 어휘로 사용 범위가 넓어 사람뿐만 아니라 과일, 공책, 학교 등을 셀 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CHN1와 CHN3의 경우 무의식중에 ‘사람 한 명’, ‘친구 한 명’을 표현할 때 ‘사람 한 개’, ‘친구 한 개’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자어를 사용할 때에도 형태는 같으나 그 사용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며 의미와 용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어휘로 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현상에 대해 육요(2009)는 한자어 어휘가 유입 당시에 중국어에서의 의미와 동일하게 전용되었지만 두 언어가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가 유입된 후에 자국의 언어 체계에 맞추어 의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르게 쓰이게 된 한자어가 존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단위명사 ‘매’의 경우 종이나 널빤지 따위를 세는 단위로 ‘영수증 3매, 영화표 2매’ 등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 양사 ‘枚’는 주로 형체가 작고 동그랗게 생긴 사물을 셀 때 단위명사로 ‘一枚奖章(메달 한 개)’, ‘一枚导弹(유도탄 한 발)’와 같이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 ‘매’를 사용할 때 대상 명사를 메달이나 종알 따위와 결합시키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는 문장 구성에 있어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여 어떠한 문법 형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중국어는 어형 변화를 하지 않고 문법적 관계가 어순에 의해 표시되고 이 때문에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존재하며 『어문규정집』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설문 조사결과 CHN1, CHN2, CHN3 모두 ‘나무 1그루’를 바르게 적어보

라고 하면 띄어쓰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나무 한 그루’가 아닌 ‘나무 한그루’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 시 띄어쓰기 문제에 있어서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단위명사를 양사처럼 여겨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위명사 교육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인지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위명사 띄어쓰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3.2 몽골어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몽골어는 계통적으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알타이제어에 속하며 유형상으로 교착어이고 문법 구조도 한국어와 유사하다. 또한 다양한 문법적인 관계와 기능면에서도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현법에 있어서 두 언어의 문화적인 배경과 다른 생활방식, 풍습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김성연(1994:5)에 따르면 몽골어의 경우 그들 문화의 강조점인 유목문화의 영향으로 유목생활이나 유목과 관련된 상황 묘사 등에 대한 언어가 현저하게 세분되어 있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넓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유목생활로 인해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표현이나 어휘가 많다. 또한 몽골어의 수량 표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특징으로 인해, 동물, 자연과 관련하여 발달되어 있다(강신 1995:4). 그리고 몽골어는 한국어와 같이 형태상 교착어로 분류되며 표시상의 특징으로는 띄어쓰기를 하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첸드야유시 2012:8).

그러나 첨가어인 몽골어는 품사 분류 체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 후치사 간의 분류 문제이다. 몽골어는 문장에서의 구조와 어순에 따라 다른 품사로의 전용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통사적 기능을 무시한 채 형태론적 기준에만 근거한 품사 분류는 몽골어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분류 작업에 불과하다(박상택 2013:20 재인용). 그렇다보니 한국어에 존재하는 의존명사, 조사 등이 몽골어 품사 분류 체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김주희 2011:129). Dashdorj(2005:66)에서도 한국어와 몽골어의 품사 분류 체계를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나 각 품사별로 상이한 점들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명사의 경우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누어 그

분류가 비슷하지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구분이 몽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의 의존명사 체계는 몽골인 학습자에게 생소하므로 이 항목을 교육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서 중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된 『초급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의 단위명사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Solongoschuud hoyor yanziin too heregledeg. Neg ni solongos too, nuguuh ni hanz too. Ed zuiliig toolohdoo daraah ugnuudiin umnu solongos toog heregledeg: 개 (shirkheg), 잔(ayga), 장(khyydas), 병(shil), 권(boti).

(18)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하나는 한국의 고유어이고 하나는 중국의 한자어이며 사물을 셈하여 나타낼 때는 ‘개, 잔, 장, 병, 권’ 같은 단어들이 함께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표 12〉 한국어와 몽골어의 수량 표현 유형 비교

한국어 수량 표현 유형	몽골어 수량 표현 유형
N-Num	명사-수사
N-Num-C	명사-수사-단위명사
Num-N	수사-명사
Num-C(의)-N	수사-단위명사-명사

강신(1995:8)은 몽골어에서 단위명사를 이용한 수량 표현은 〈표 12〉와 같이 제시될 수 있으며 몽골어의 수량 표현 구성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는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속격표지 ‘yn/iin’가 붙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몽골어의 경우 명사 자체가 단위의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달리 단위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 사용만으로도 단위 표시가 실현됨을 알 수 있다.

(19) N-Num / 명사-수사

담배 하나 를 피웠다.

tamhi negi iig tatsan

tamhi negiig tatsan.

몽골의 수량 표현을 살펴보면 우선 (19) ‘명사-수사’ 구조의 경우 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몽골인 학습자가 한국어 수량 표현 시 ‘N-Num’와 동일한 구조가 모국어에도 존재하므로 어려움이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MON1, MON2, MON3 모두 ‘N-Num’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한국어의 ‘N-Num’ 사용에서 수사 선택 시 MON1, MON2, MON3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몽골어는 한국어와 달리 수사 체계에 있어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 ‘담배 하나’를 ‘담배 일’ 혹은 ‘담배 한’이라고 표현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MON1은 ‘사과 하나’라는 표현을 ‘사과 일’로 표현한다든가 ‘담배 하나’라는 문제를 ‘담배 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류 문제를 사후면담을 통해 밝혀 보면 몽골어에는 수사가 한국어처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선택에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답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김주희(2011:85)에 따르면 몽골어는 한자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혹은 외래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한자어 학습을 어렵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몽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N-Num’를 가르칠 때 교사는 이 구조에서 수사는 고유어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좋을 것이다.

(20) N-Num-C / 명사-수사-단위명사

ㄱ. 친구 세 명이 왔다.

naiz gurav ∅ irsen

*naiz gurav irsen.

guravan naiz irsen.

ㄴ. 꽃 다섯 송이를 샀다.

tsetseg tavan ∅ iig avsan

tavan shirhegiig tsetseg avsan.

다음으로 몽골어도 한국어와 같이 ‘N-Num-C’가 존재한다. 다만 (20ㄱ)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어는 한국어와 달리 사람을 단위화하여 세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 해당하는 ‘명’과 같은 단위명사가 없기 때문에 MON1은 ‘친구 세 명’이라는 표현

을 단위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모국어에 존재하는 ‘Num-N’를 사용하여 ‘세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N-Num-C’ 사용의 또 다른 예로 (20ㄴ)를 살펴보면 몽골어의 경우 한국어처럼 꽃을 세는 단위인 ‘송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꽃을 단위화하여 표현할 경우 한국어 단위명사 ‘개’에 해당하는 ‘shirheg’를 사용하여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몽골어 단위명사 ‘shirheg’는 사용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몽골인 학습자가 한국어 표현 ‘꽃 다섯 송이’를 모국어의 영향으로 ‘꽃 다섯 개’라고 표현하여 한국어 단위명사 ‘개’의 과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MON2와 MON3의 설문조사 결과 ‘N-Num-C’의 표현 문제에 있어서 ‘자전거 네 개’, ‘노래 아홉 개’, ‘커피 한 개’라고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를 면담을 통해 들어보면 몽골어에는 ‘개’에 해당하는 ‘shirheg’가 대부분의 단위를 세는 표현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 단위명사 ‘개’ 사용에 더 익숙하다고 답하였다.

(21) Num-N / 수사-명사

두 학생이 만났다.
 hoyor oyutan uulzsan
 hoyor oyutan uulzsan.

(21)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어의 ‘수사-명사’ 유형은 한국어 ‘Num-N’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며 몽골인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조이다. 몽골어에는 한국어처럼 다양한 단위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명사 자체로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아지 한 마리’,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한 강아지’, ‘한 노래’ 형식으로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 강신(1995:18)에 따르면 몽골어의 경우 명사 자체가 세어질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명사를 쓰지 않고도 양화 표현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MON3과 면담조사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나무 한 그루’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모국어 구조와 같이 ‘한 소’, ‘한 나무’라고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수량 표현인 ‘수사-명사’ 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여 ‘한 소’, ‘한 나무’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권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할 경우 어떻게 읽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MON1, MON2, MON3 모두 혼란스러워 하였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몽골어는 수사 체계가 한국어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두 학생’이라는 표현을 ‘둘 학생’ 혹은 ‘이 학생’으로 나타내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22) Num-C(의)-N / 수사-단위명사(의)-명사

ㄱ. 세 병 의 맥주 를 마셨다.

gurav shil yn pivu iig uusan

*gurvan shilyn pivu uusan.

gurvan shil pivu uusan.

ㄴ. 맥주 세 병 을 마셨다.

pivo gurav shil iig uusan

*pivo gurav shiliig uusan.

gurvan shiliig pivu uusa.

ㄷ. 다섯 대 의 자전거가 있다.

tavan shirheg yn dugui baigaa

*tavan shirhegyn dugui baigaa.

tavan shirheg dugui baigaa.

(22ㄱ)와 (22ㄴ)을 살펴보면 몽골어에도 한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속격조사 ‘yn 혹은 iin’이 존재하나 수량 표현 시 한국어처럼 단위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즉 ‘세 병의 맥주’를 몽골어에서는 ‘세 병 맥주’로 표현한다. 강신(1995:19)에 따르면 몽골어에서 단위명사 사용 시 이렇게 속격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두 언어 사이에 공통적으로 속격 조사가 존재하나 수량 표현 시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몽골인 학습자로 하여금 ‘Num-C(의)-N’ 학습에서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을 간과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즉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몽골인 학습자들은 ‘Num-C(의)-N’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한 수량 표현은 옳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 (22ㄷ)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기계류를 세는 단위명사인 ‘대’가 몽골어에서는 ‘shirheg’ 즉 ‘개’로 실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몽골어에는 기계류를 세는 단위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명사는 한국어 단위명사 ‘개’에

해당하는 ‘shirheg’로 실현된다. 실제 MON2와 MON3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단위명사 ‘대’ 사용의 문제가 나타났고 사후 면담을 통해 들어보면 몽골어에 기계를 세는 단위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한국어에 기계를 세는 단위명사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의 영향으로 단위명사 ‘개’의 사용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영어권 학습자의 전이와 간섭

품사 또는 범주는 한 언어에서 공통적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의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품사의 분류 및 정의는 개별 언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치사는 영어에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어에서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하는 요소가 한국어에서는 다른 형태소에 의존적인 조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안상철·최인철 2008:91).

영어는 품사 체계에 있어서 한국어와 달리 수사가 독립된 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사 사용에 있어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나타내며 수량의 가능성에 따라 가산 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강아름(2006:1)에 따르면 영어와 한국어는 사물의 개체화와 그것의 수량 표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한다.

영어의 경우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가산명사로 단수와 복수의 형태를 접미사 ‘-s/es’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two books’처럼 ‘two’는 ‘book’의 수를 나타내고 ‘-s’는 대상이 되는 사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임을 나타내주는데 이를 복수라고 하며 이때 ‘-s’는 복수를 나타내는 복수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많이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two books’는 ‘두 책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책 두 권’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영어는 복수표현을 할 때 반드시 복수 접미사 ‘-s’가 나타나야 하지만 한국어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두 책들’의 예에서처럼 접미사 ‘-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접미사 ‘-들’은 영어의 복수접미사 ‘-s’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광수 외 2005:235).

또한 영어의 경우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는 불가산명사로 원칙적으로 단수의 형태로 나타내며 이때 수량을 표현할 경우 조수사(numerative)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권순영 2012:33). 즉 한국어는 명사를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지만 영어의 명사는 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눈다. 이렇게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에 대해 백인정(2013:1)은 한국어 문법체계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 한 개를 좋아한다.’ 혹은 ‘나는 사과들을 좋아한다.’라고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한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an apple’ 또는 ‘apples’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표 13〉 한국어와 영어의 수량 표현의 예 비교

한국어 수량 표현의 예	영어 수량 표현의 예
학생 하나	a student
학생 한 명	
한 학생	
한 명의 학생	

〈표 13〉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수량 표현에 있어서 다양하게 실현되지만 영어의 경우 명사 앞에 수사를 붙이는 것으로 끝난다. 이는 명사 자체가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에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수량 표현이 한국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영어권 학습자들이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들을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ENG3과 면담조사 결과 영어에서는 단위명사라는 것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의해서 단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수량 표현 학습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대상자 ENG1, ENG2, ENG3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 수사가 나누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학습을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관련 문항에서 크게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 면담 시 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발화를 들어보면 무의식적으로 ‘두 달’을 ‘이 달’로 표현하거나 ‘이 년’을 ‘두 년’으

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는 수사 체계에 있어서 한국어처럼 한자어나 고유어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체계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는 기타 한자어권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수사 사용에 있어서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수량을 표현할 때 ‘3 병, 사과5, 7마리 오징어...’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사 사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예를 보고 ‘삼 병, 사과 오, 칠 마리 오징어...’로 읽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사와 단위명사의 결합 방식과 사용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익숙한 유형으로만 표현하려 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국에 얼마나 있었어요?’라는 문항에 대해 답안 선택 양상을 살펴보면 ENG1, ENG2, ENG3 모두 ‘사 개월 있었어요.’를 알고 있음에도 ‘네 달 있었어요.’라고만 답을 표시하는 부분이나 나이를 묻는 질문에도 ‘이십 세’를 알고 있음에도 ‘스무 살’이라고만 답을 하였다. 그리고 사후 면담 시 각각의 수사와 단위명사를 바꾸어서 ‘이십 살’, ‘스무 세’라는 표현이 올바른지 물어보면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영어에서 수를 표현하는 문제에 관해 영어의 불가산 명사에 해당되는 물질명사, 추상명사의 경우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여 단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가 한국어 단위명사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를 사용하여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된다(손한 1994:58). 그렇다면 한국어처럼 단위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법서나 교재에서 한국어 단위명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 Korean numbers are often used in conjunction with ‘Counters’ which are also called ‘Classifiers’. ‘Counters’ are words that are used to count people, animals, and different types of objects.

(23)은 『서강한국어 문법·단어 참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위에 따르면 한국어의 수는 단위명사(혹은 분류사)라고 불리는 것과 결합되어 사용되며 여기서 ‘단위명사’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 다양한 물건을 셀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영어는 수사 사용 자체만으로도 사물을 개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단위명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도 분명 단위성을 표현하는 명사가 존재한다.

〈표 14〉 영어의 단위 표시 예

명사	의미	예
bunch	다발/묶음	a bunch of bananas a bunch of flowers
head	통	a head of cabbage a head of lettuce
pair	쌍	a pair of glasses a pair of socks
slice	조각	a slice of bread a slice of cheese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에서 명사의 경우 ‘a-(단위를 나타내는 명사)-of-추상 명사’ 구조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수 있다. 영어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단위성이 높은 자립명사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영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 시 ‘바구니’, ‘병’, ‘다발’과 같은 단위성이 강한 자립명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모국어와 구조상으로 유사함으로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면담을 통해서 ENG1, ENG2, ENG3 모두 ‘a bunch of flower’, ‘a bottle of water’와 같은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물 한 병’이라고 표현하였지만 ‘a-bunch-of-flower’, ‘a-bottle-of-water’ 형식으로 문장 부호 ‘-’를 표시하여 다시 제시해주면 ‘한 다발의 꽃’, ‘한 병의 물’이라고 답하였다. 즉 모국어와 유사한 구조를 익힐 때에 간섭 현상 없이 어휘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에서 이렇게 일반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기능한다는 점이 항상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ENG1과 ENG2는 ‘병 한 개’를 ‘병 한 병’으로, ‘컵 한 개’를 ‘컵 한 컵’과 같이 단위명사와 자립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을 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설문 내용 전반적으로 ENG1, ENG2, ENG3 모두 한국어의 4가지 수량 표현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Num-N’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단위명사 ‘명’을 사용하여 ‘두 명(의) 남자’ 혹은 ‘남자 두 명’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두 남자’, ‘두 사람’으로만 표현함으로써 ‘Num-N’ 사용에 다소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어에서 수량을 표현 할 때 ‘two men’, ‘two people’과 같이 ‘Num-N’로 실현되기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로 표현할 때에도 모국어에도 존재하는 유사한 구조로만 사용하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단위명사 개별 어휘 사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ENG1과

ENG2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다발, 번, 층, 결례, 포기...’ 등은 그 쓰임과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ENG1의 경우 단위명사 띄어쓰기 문제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 장을 통해 각 언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량 표현을 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각 학습자의 모국어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수량 표현 구조를 비교해봄으로써 외국어의 어떠한 구조가 이러한 문제를 조장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두 언어의 구조적인 유사점과 상이점을 알아보는 작업을 통해 각 언어 모두 수량을 표현하는 형식이 존재하지만 단위명사의 존재 유무와 종류, 단위명사가 실현되는 구조와 쓰임에 있어서 한국어와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 단위명사에 해당하는 양사가 하나의 품사로 따로 존재하며 그 수와 종류가 다양했다. 양사가 실현되는 구조가 한국어와 유사하나 개별 어휘 문제에 있어서 대상 명사와 양사의 관계가 한국어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양사가 실현되는 구조에서도 한국어의 경우 관형격 조사 ‘의’ 사용이 수의적인 반면 중국어에도 관형격 조사 ‘的’가 양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그 용례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한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양사가 지시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지시대명사-양사-명사’ 유형이 존재했다. 몽골어 역시 단위명사가 존재하지만 그 수와 종류가 한국어처럼 다양하지 않고 단위명사 사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속격표지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한국어의 수량 표현 중 하나인 ‘Num-C(의)-N’가 몽골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영어의 경우 한국어와 단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수사 사용만으로도 단위가 표현된다는 점에서 수량 구성 유형이 한국어처럼 다양하지 않았다. 국적에 상관없이 분석 대상 언어 모두 수사 체계가 한국어처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 실재하지 않았으며 단위명사 사용 시 띄어쓰기 규칙이 없고 한국어와 동일한 단위명사 어휘가 모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한국어 단위명사와 유사한 어휘가 존재하더라도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보였다.

한국어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각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처방을 모색하고자 비교-대조 분석 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IV. 초급 학습자 대상 단위명사 교수 방안

언어교육학자들은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학습상 곤란한 부위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결과물은 언어교육에 있어서 교재 편집, 지도상의 강조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홍사만 2003:54).

앞서 3장을 통해 각 언어마다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처럼 ‘단위명사’라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더라도 그 쓰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한국어 수사와 단위명사 사용에 관한 문항을 30개 정도 제시한 뒤 각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여 본인이 선택한 답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대상자의 언어와 한국어의 수량 표현 구조를 비교하여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대조 작업을 실시한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모국어와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 학습과 사용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 단위명사는 용법상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 불규칙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이 일반 어휘 교육처럼 개별 단위명사의 의미 전달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가 단위명사 사용 시 개별 어휘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결합 양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면 띄어쓰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이때 과도한 아라비아 숫자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수 체계 학습을 완료한 학습자가 ‘19’를 ‘십구’라고 읽는데 무리가 없으나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경우 ‘19살’을 ‘열아홉살’로 읽어야 할지 ‘십구 살’로 읽어야 할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교수자료 및 교육 실용서를 고안해 보도록 하겠다. 본고의 목적은 초급 학습자를 대

상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단위명사 사용을 위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초급 대상자를 학습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평가 기준

등급		평가 기준
초급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어 단위명사는 우리 생활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교육 시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급 과정부터 물건·가격·시간·날짜 등의 주제를 통해 단위명사를 배우게 된다.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위명사 교육이 초급 과정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이 단위명사를 사용할 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정확한 표현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4.1 단위명사 교수자료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익히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나 외국어의 어휘를 전부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허유희 2001:232).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떤 어휘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는 학습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어휘가 교육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은 명확한 교육 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2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어 교재는 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보일 수 밖에 없고 제시되는 어휘량의 편차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명사 어휘 목록을 어디에서 찾을 지에 대한 문제의 방안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습용 등급별 어휘 목록(조남호 2003)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에게 기본 어휘 선정을 의뢰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 우선 순위 단위명사 목록을 고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선정한 단위명사를 대상으로 학습 지도 시 교사는 어떠한 교수자료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미리 정리해 놓은 교수자료를 통해 교사는 여러 수업 모형을 설계할 수도 있고 수업 절차에 맞게 다양한 교수법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단위명사 교수자료는 이미 한국어 수사 학습을 마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위명사가 자주 노출될 수 있는 물건사기 주제를 학습 상황으로 놓고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단위명사가 어떠한 주제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지 학습자들이 인지하게 되면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을 기억해 내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단위명사 교육의 목표가 어휘 양의 확대나 개별 어휘 의미를 익힌다는 것 자체로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위명사 어휘들을 개별로 제시하여 가르치게 되면 학습자들은 낱개의 단어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단위명사 사용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제안하는 단위명사 교수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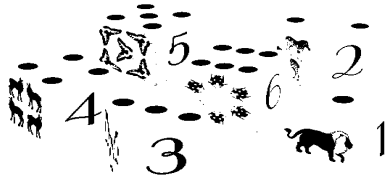
〈표 16〉 단위명사 교수자료 전제 항목

학습 주제	물건사기
학습 대상자	(이미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 학습을 마친) 초급 학습자
학습 목표	한국어 단위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내용: 개(個), 대(臺), 마리, 원, kg(킬로그램) •문법내용: N-Num-C •표현내용: ‘-있어요/없어요’, ‘N은/는 얼마예요’, ‘N하고 N 주세요’

단위명사 교수 자료 구성 시 전제 항목에 대해 학습 주제와 대상자,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한국어 단위명사가 가장 많이 노출 되는 상황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이며 단위명사 학습에 있어서도 물건사기 주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과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학습 대상자는 이미 한국어 수 체계 학습을 완료한 초급 대상자로 삼았다. 그러나 수업 도입 시 학습자가 초급 단계임을 감안하여 그들이 한국어 수사 사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될 것이다. 물론 최종 학습 목표는 수사 학습이 아닌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에 있으며 각각의 단위명사 어휘를 적절히 선택하여 정확한 문장을 생성해 내도록 하는데 있다.

학습 내용을 어휘, 문법, 표현에 따라 나누면 우선 학습 어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습용 등급별 어휘 목록에서 물건사기 주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명사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해당 어휘는 ‘개(個), 대(臺), 마리, 원, kg(킬로그램)’이며 다양한 수량 표현 구조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N-Num-C’를 문법 내용으로 다룰 것이다. 앞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수량 표현 시 ‘N-Num-C’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현대 국어에서는 단위명사를 사용한 수량 표현이 압도적으로 선호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표현 내용으로 물건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있어요/없어요’, ‘N은/는 얼마예요’, ‘N하고 N 주세요’를 가지고 한국어 단위명사 교수자료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건사기>



물건을 셀 때 어떻게 말해요?

◎ 한국어 단위명사

1. 개

..... 사과 하나 → 한 개 → 사과 한 개

..... 사과 둘 → 두 개 → 사과 두 개

2. 대

..... 자동차 하나 → 한 대 → 자동차 한 대

..... 자동차 둘 → 두 대 → 자동차 두 대

3. 마리

..... 물고기 하나 → 한 마리 → 물고기 한 마리

..... 물고기 둘 → 두 마리 → 물고기 두 마리

◎ 연습



A: 사과 몇 개 있어요?

B: 사과 세 개 있어요.



A: 자동차 몇 대 있어요?

B: 자동차 두 () 있어요.



A: 물고기 몇 마리 있어요?

B: 물고기 네 () 있어요.

① 빈칸 채우기



A: 가방 몇 개 있어요? B: 가방 (세 개) 있어요.



A: 컴퓨터 몇 대 있어요? B: 컴퓨터 () 있어요.



A: 고양이 몇 마리 있어요? B: 고양이 () 있어요.

② 문장 완성하기




- (모자) → 모자 한 개는 얼마예요?
- (지우개) → _____.
- (세탁기) → _____.
- (소고기) → _____.

③ 문장 배열하기

- 개, 샀어요, 다섯, 사과를, → 사과 다섯 개를 샀어요.
- 일, 토마토, 주세요, 킬로그램, → _____.
- 있어요, 강아지, 마리, 두, → _____.

④ 대화 완성하기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친구와 함께 가격을 묻고 대답해 보세요.

 햄버거 1500원	 치약 2000원	 양말 1000원
---	--	--

<보기>

- A: 햄버거 한 개는 얼마예요?
B: 햄버거 한 개는 오백 원이에요.

◎ 과제

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 오늘 나는 마트에 갑니다.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사 보세요.
쌀 1kg (10000원)
감자 10kg (1000원)
고등어 1마리 (5000원)
아이스크림 1개 (800원)

⑥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써 보세요.

저는 오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마트에는 _____ 와/과 _____ 와/과
_____ 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_____ 와/과 _____ 와/과 _____ 을/를
샀습니다. _____ 은/는 _____ 에 _____ 원이었습니다.
_____ 은/는 _____ 에 _____ 원이었습니다. 저는 _____ 와/과
_____ 을/를 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단위명사 교수자료>

수업 시작에 앞서 교사와 학습자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한국어 수사 사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우게 될 단위명사에 대한 노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단위명사가 수사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이때 선택적 제약 관계가 실현되기 때문에 숫자 ‘1’이 한자어 수사로 어떻게 읽으며 고유어 수사로는 어떻게 읽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고유어 수사 사용을 할 때 변이형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호적인 교실 분위기 연출을 위해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간단한 대화의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생의 책상에 놓인 필통을 보며 ‘필통 안에 무엇이 있어요?’라고 질문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볼펜 둘...’과 같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한 연필, 두 볼펜...’ 등과 같은 오류를 생산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는 ‘연필 한 개, 볼펜 한 개 있어요?’라고 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단위명사를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배우게 될 사항을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다음으로 단위명사의 개념과 쓰임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한국어에서 사물의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단위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가장 기본적인 단위명사 어휘와 함께 ‘N-Num-C’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이때 한국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위명사 ‘개(個)’를 먼저 가르친 뒤 그 다음으로 ‘대(臺), 마리, 원, kg(킬로그램)’ 순으로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순서를 제시하는 이유는 각각의 단위명사마다 수사 사용에 있어서 선택적 제약이 따르므로 단위명사 중에 우선 고유어 수사와 먼저 결합하는 어휘를 가르친 뒤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때 교사는 과도한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자제하고 학습자들의 띄어쓰기 문제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본격적인 단위명사 지도 시 각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형태·구조적 차이를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단위명사 ‘개(個)’는 중국어 ‘个’와 달리 사람을 셀 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어권 화자에게는 이점을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 몽골어 화자의 경우 몽골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shirheg’와 같이 사용 범위와 쓰임이 비슷하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단위명사에 대한 인식이 기타 언어권 학습자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물을 셀 때 ‘piece’나 ‘unit’ 단위로 각각의 사물에 맞게 지정된 어휘가 있음을 알려준다.

또 다른 한자어 단위명사 ‘대(臺)’를 설명할 때에는 차,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 제품을 셀 때 널리 사용하는 어휘로 중국어의 경우 전자 제품을 세는 양사인 ‘tai’와 그 쓰임이 비슷하며 몽골어 화자의 경우 단위명사 ‘대(臺)’가 존재하지 않고 ‘개(個)’로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에는 전자 제품을 세는 단위명사가 따로 존재한다고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고유어 단위명사 ‘마리’에 있어서도 ‘마리’가 동물을 셀 때 쓰이는 단위명사이며 위와 같이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단위명사 어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고유어 단위명사 ‘원’의 경우 한자어 수사와 사용되며 학습자들이 고유어 수사를 사용하여 ‘열 원’, ‘십 원’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폐를 나타내는 고유어 단위명사 ‘원’의 경우 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학습자들이 한자어 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읽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어·한자어 단위명사 외에도 외래어 단위명사인 ‘kg(킬로그램)’이 등장하는데 kg(킬로그램)은 국제단위로써 질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므로 ‘kg(킬로그램)’에 대한 단위 인식이 언어마다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외래어 단위명사 ‘kg(킬로그램)’을 설명할 때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감자 1kg’을 ‘감자 한 킬로그램’ 혹은 ‘감자 하나 킬로그램’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지도되면 좋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단위명사 사용 규칙을 배운 뒤 ‘-있어요/없어요’, ‘N은/는 얼마예요’, ‘N하고 N 주세요’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교사는 구조적인 사용을 기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순서에 맞게 문장 완성하기, 대화 완성하기 등을 통해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교사는 기계적인 연습을 마친 후 유의적 연습으로 실제적인 과제를 주고 짝 활동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과 역할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으며 이러한 활동은 연습의 기회가 되어 실제 생활에서 단위명사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 단위명사 교육 실용서 구성안

앞서 제안한 단위명사 교수자료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단위명사 교육을 위해 교사용 실용서를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백봉자(2001:30)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몇몇 과제 중 하나로 교사 참고 자료의 개발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사를 위한 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교사는 한국어 교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전문 이론서를 보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참고서가 분야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은경·황혜나(2009:170)에 따르면 ‘교사용 실용서’는 ‘이론서’의 상대적 개념으로 교사에게 실제적인 교수 기법을 제공하고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자료 및 보조 자료 등을 수록한 자료를 지칭한다. 이는 ‘교사용 지침서’와 ‘교사용 활동 자료집’ 그리고 ‘교사용 핸드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 교사 연수 담당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교수 기법에 대한 안내, 조언 등을 제공하고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록한 것으로 교사의 능력이나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에 교사용 실용서의 종류에 따라 사용 목적 및 내용적 특징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이 제시되어진다.

<표 17> 종류별 교사용 실용서의 특징

	교사용 지침서	교사용 활동 자료집	교사용 핸드북
목적	특정 교재의 활용도 제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 절감 교수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예비 교사의 교육 현직 교사의 재교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내용적 특징	성취도 평가, 교재 활용 방법, 학습자 오류 정보, 예상 질문 등 제공	활동 목표, 진행 절차, 준비물,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교실 내·외 상황 및 교수 기법 등과 관련된 주요 개념 설명 및 과제 제공
제공 자료	연습 문제, 성취도 평가 자료, 그림 자료, 정답, 해설	그림 자료 및 활동지	용어 사전 및 해설 목록 (glossary)

본고에서 제안하는 단위명사 교사용 실용서는 <표 17>에서 교사용 핸드북의 특징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언어권별 학습자를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단위명사 교수자료에 따라 실제 교사가 단위명사 수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고안하였다. 실용서의 구성은 결합 형태 별로 수량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단위명사 어휘의 개념과 쓰임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하여 설명을 해 놓았다. 각각의 단위명사는 한자어에서 고유어, 외래어 순서로 제시되고 고유어 수사와 결합이 가능한 단위명사를 먼저 다룬 후에 한자어 수사와 결합이 가능한 어휘를 다루었다. 그림과 그 그림에 맞는 대상 명사와 단위명사를 나타내었고 표를 사용하여 각 언어권 별로 실현 가능한 구조와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때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KOR은 Korean으로 한국어를 나타내며 CHN는 Chinese의 약자로 중국어에 해당한다. MON은 Mongolian language의 약어로 몽골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ENG는 English의 약자로 영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언어권별로 KOR, CHN, MON, ENG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수량 구조 유형에 있어서도 기호를 사용하여 가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N은 Nouns의 약자로 명사를 나타내고 Num은 Numerals의 약어로 수사를 뜻하고 단위명사는 C로 Counter words를 의미한다. 여기서 C의 경우 어원에 따라 SC, NC, FC로 나누어 표시하였는데 SC는 Sino-Korean Counter words로 한자어 단위명사를, NC는 Native-Korean Counter words로 고유어 단위명사를, FC의 경우 Foreign Language Counter words 외래어 단위명사를 나타낸다. 수사 역시 어원에 따라 NNum와 SNum를 기호로 사용하여 표시하였고 이때 NNum이라 함은 Native-Korean Numerals를 나타내는 기호로 고유어 수사를 의미하고 SNum은 Sino-Korean Numerals로 한자어 수사를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기호는 각각의 수량 표현 구조를 표시할 때 사용되었으며 예를 들어 'N-NNum-SC'라 함은 '명사-수사-단위명사' 유형에서 파생된 구조로 '명사-고유어 수사-한자어 단위명사'의 결합을 의미한다.

한국어와 동일한 수량 구조가 각각의 외국어에 존재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표현을 표에 제시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언어권별로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할 수 있는 오류 사항 및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교사가 단위명사 교육 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NNum - SC

1. 단위명사 ‘개(個)’ :

- 달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
- 예) 사탕 한 개, 사과 한 개...
- 고유어 수사와 결합
- 언어권별 수량 표현의 예

 : 사과, 개(個)

	KOR	CHN	MON	ENG
N-Num	사과 하나	X	X	X
Num-N	X	X	neg alim	an apple
NNum-SC	한 개	一个	neg shirheg	X
N-NNum-SC	사과 한 개	一个苹果	X	X

※ 학습자들이 단위명사 ‘개(個)’를 사용할 때 한자어 수사를 사용하여 ‘사과 일 개’로 표현하거나 고유어 수사를 수관형사로 표현하지 않고 ‘사과 하나 개’로 사용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수사 사용에 유의를 두고 지도한다.

중국어와 몽골어의 경우 한국어 ‘개’에 해당하는 어휘가 ‘수’와 ‘shirheg’로 존재하지만 쓰임에 차이가 있다. 중국어 ‘수’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도 기능을 하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 ‘개(個)’를 사람을 셀 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몽골어 ‘shirheg’는 한국어 ‘개(個)’와 쓰임이 비슷하지만 몽골어의 경우 ‘neg shirheg alim’으로 표현하지 않고 ‘neg alim’과 같이 수사를 통해 사물을 단위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단위명사가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영어는 단위의 개념과 해당 어휘의 수와 종류에 있어서 한국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個)’를 지도할 때에는 한국어는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다양하며 ‘개(個)’는 사물을 셀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어휘임을 강조한다. 특히 몽골어와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N-NNum-SC’를 구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대상 명사에 따른 단위명사 사용, 해당 단위명사에 따른 고유어 수사 사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단위명사는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교사는 단위명사 학습 단원에서 과도한 아라비아 숫자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이는 수사와 단위명사 결합 시 발생하는 제약으로 인해 어떠한 단위명사는 고유어 수사로, 어떠한 단위명사는 한자어 수사를 사용한다는 사항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경우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2. 단위명사 ‘대(臺)’ :

- 차나 기계 약기 따위를 세는 단위
예) 자동차 다섯 대, 비행기 열 대...
- 고유어 수사와 결합
- 언어권별 수량 표현의 예



: 자동차, 대(臺)

	KOR	CHN	MON	ENG
N-Num	자동차 하나	X	X	X
Num-N	X	X	neg mashin	a car
NNum-SC	한 대	一辆/架/台	X	X
N-NNum-SC	자동차 한 대	一辆车	X	X

※ 단위명사 ‘대(臺)’는 차, 비행기, 냉장고, 컴퓨터 등 기계류를 셀 때 사용되는 어휘로 몽골어와 영어에는 기계류를 세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나 중국어의 경우 차는 辆으로, 비행기는 架로, 냉장고나 컴퓨터는 ‘台’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는 기계류를 셀 때 모두 단위명사 ‘대(臺)’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몽골어와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대(臺)’를 가르칠 때에는 구조적인 사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앞서 한자어 단위명사 ‘개(個)’처럼 ‘대(臺)’ 역시 고유어 수사와 쓰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동차 하나 대’, ‘자동차 일 대’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NNum - NC

3. 단위명사 ‘마리’ :

-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예) 소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 고유어 수사와 결합
- 언어권별 수량 표현의 예



: 물고기, 마리

	KOR	CHN	MON	ENG
N-Num	물고기 하나	X	X	X
Num-N	X	X	neg zagas	a fish
NNum-NC	한 마리	一条/只/头	X	X
N-NNum-NC	물고기 한 마리	一条鱼	X	X

※ 고유어 단위명사 ‘마리’는 ‘물고기, 강아지, 소...’ 등 동물을 셀 때 사용되는 어휘로 몽골어와 영어에는 이렇게 동물을 세는 단위 ‘마리’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를 사용해서 수량 표현을 한다. 그러므로 몽골과 영어권 학습자에게 단위명사 ‘마리’를 지도할 때 그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여 ‘단위’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며 단위명사를 사용한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예를 들어 선행 명사를 물고기 외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말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여 위와 같은 동물명사가 단위명사 ‘마리’와 함께 결합되어 쓰인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어의 경우 ‘마리’에 해당하는 단위명사가 존재하지만 물고기의 경우 ‘条’를, 강아지나 고양이는 ‘只’를, 소나 돼지는 ‘头’를 사용하여 단위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짐승이나 물고기를 셀 때 모두 단위명사 ‘마리’를 사용하여 수량 표현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또한 학습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단위명사 ‘마리’는 고유어 단위명사로 고유어 수사와 결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물고기 일 마리’, ‘말 이 마리’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주면 좋을 것이다.

→ 제안 사항: 수업 도입 시 ‘N-Num’를 시작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사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한 뒤 단위명사를 사용한 수량 표현을 익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교사는 ‘N-Num’가 어떻게 ‘N-Num-C’로 바뀌어 사용되는지 구조적인 차이를 강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판서나 ppt자료를 이용하여 보여줌으로써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이해시키고 난 뒤 ‘-있어요/없어요’ 구문을 사용하여 간단한 표현 연습을 하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SNum - NC

4. 단위명사 ‘원’ :

- 우리나라 화폐 단위
예) 오십 원, 백 원, 천 원...
- 한자어 수사와 결합
- 한국어 단위 표현의 예

W : 원

	KOR
SNum-NC	100원 (백 원) 1,000원 (천 원)

N-SNum-NC	사탕 500원 책 1,000원 입장료 10,000원
-----------	------------------------------------

※ 한국 화폐 단위는 단위명사 ‘원’을 사용해서 나타내며 모든 나라에 통화의 단위가 존재하므로 단위명사 ‘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원’은 한국어에서 고유어 단위명사이며 ‘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사는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이다. 물론 학습자들이 큰 단위의 수 ‘1,000’, ‘10,000’ 등을 표현할 때 고유어 수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10’, ‘50’과 같이 ‘100’ 이하의 수를 표현할 때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사용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즉 ‘십 원’, ‘오십 원’, ‘백 원’ 등을 ‘열 원’, ‘천 원’ 등으로 읽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원’은 한자어 수사와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한다.

또한 고유어 단위명사 ‘원’의 경우에도 ‘N-Num-C’를 사용하여 ‘-은/는 얼마예요’와 ‘-원이에요’ 표현 구문을 통해 익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탕은 얼마예요’라는 표현을 ‘사탕 한 개는 얼마예요’ 형식으로 연습하여 ‘사탕 한 개는 500원이에요’나 ‘사탕 500원이에요’로 단위명사를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Num - FC

5. 단위명사 ‘kg(킬로그램)’ :

- 국제단위계에서 질량의 단위
- 한자어 수사와 결합
- 한국어 단위 표현의 예

kg : 킬로그램

	KOR
SNum-FC	1kg 10kg
N-SNum-FC	토마토 1kg 감자 5kg 쌀 20kg

※ 'kg(킬로그램)'은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단위이므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각 언어권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언어가 단위명사 'kg(킬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량을 표시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kg(킬로그램)'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어의 경우 단위명사 'kg(킬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자어 수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라비아 숫자-kg(킬로그램)'과 같이 표기될 때 이 구조에서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지 말하기 연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즉 학습자들은 '1kg'을 '한 킬로그램' 혹은 '하나 킬로그램'과 같이 잘못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자어 수사와 외래어 단위명사 'kg(킬로그램)'에 대한 사용 이해가 완료 되었으면 다음으로 'N-Num-C'를 사용하여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구조적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되면 좋을 것이다.

→ 제안 사항: 단위명사 '개(個), 대(臺), 마리, 원, kg(킬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마친 후에 최종 목표인 물건사기 연습을 과제를 통해 실시해보면 좋을 것이다. 앞서 제안한 교수자료에 따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물건사기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있어요/없어요', 'N은/는 얼마예요', 'N하고 N 주세요' 표현을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교사용 실용서〉

단위명사 교육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에서 제시한 교사용 실용서는 단위명사와 수사 결합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조적인 사용 부분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NNum-SC'를 시작으로 'NNum-NC', 'SNum-NC' 그리고 'SNum-FC' 순서로 각 구조에 해당하는 단위명사 어휘를 다루었으며 언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교사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실용서는 앞서 제시한 단위명사 교수자료에 따른 교사용 핸드북으로 여기서 다루는 단위명사는 교수자료에서 제시하는 어휘와 일치하며 단위명사를 가르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수자료에 제시된 연습 문제 및 과제 활동 진행 시 학습자들이 생산해내는 실수와 오류를 설명할 때에도 이 실용서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한국어 단위명사는 실제 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종류도 다양하며 결합 양상 또한 아주 복잡하다. 단위명사는 쓰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명사와 수사가 같이 결합되어 사용되고 실현 양상에 있어서도 복잡한 공기 관계를 형성한다. 즉 대상 명사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단위명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결합이 가능한 수사 선택에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위명사의 결합 양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단위명사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 생활 시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용법을 알아두고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방안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효과적인 단위명사 교육 방법을 제안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위명사 사용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에 있어서 I 장은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해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II 장은 한국어 단위명사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명사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기준으로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명사의 수와 단위명사를 교육하는 단원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루고 있는 단위명사 어휘의 수와 제시 방법에서 교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명사에 대한 개념과 쓰임을 다루지 않고 개별 어휘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단위명사에 대한 인식과 구조적인 사용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까지 간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위명사를 다룰 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 대상자가 초급 단계임을 감안했을 때 아직 그들이 능숙하게 수사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단위명사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재 분석을 통해 발견된 사항을 기초 자료로 삼고 III 장에서는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모두 한국어 단위명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의 수량 표현 구조를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이유는 외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모국어의 습관을 무시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 모국어의 어떠한 구조가 영향을 끼치는지 비교·대조 분석 작업을 통해 그 처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교·대조 분석 작업 결과 각각의 외국어에 한국어와 동일한 구조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단위에 대한 개념과 수량 표현 시 실현되는 구성 요소 및 어순에 있어서 상이했다. 물론 한국어 단위명사와 유사한 어휘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사용 범위와 쓰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IV장에서는 I 장과 II 장 그리고 III 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단위명사 교수자료를 제시하여 보았다. 이 교수자료는 단위명사가 자주 노출되는 물건사기 주제를 학습 상황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학습 상황을 기억해 내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교육 대상 어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습용 등급별 어휘 목록에서 물건사기 주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명사를 추출하여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문법 사항에서 여러 가지 수량 표현 구성 중 단위명사가 실현되는 'N-Num-C'를 적용하여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교수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단위명사 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실용서를 제안해 보았다. 이 교사용 실용서는 각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어·몽골어·영어권 학습자들이 단위명사를 학습할 때 발생 가능한 오류 및 교사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위명사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차원의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각 언어권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여 처방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 방안으로 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단위명사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교수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에 따라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서를 제안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교수자료와 실용서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신(1995) 「현대 몽골어의 분류사와 양화구문」, 『몽골학』 3. 1-20쪽.
- 강아름(2006) 「한국어 물질 명사의 의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신자영·이재성·임효상(2003) 『대조분석론』, 도서출판 역락.
- 고창수·김원경 (2010) 『소통을 위한 한국어 문법』, 박문사.
- 권순영(2012)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 체계 비교 연구 :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현주(1996) 「日本人學習者를 對象으로한 韓國語 發音教授法 研究 : 對照言語學的 方法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건환(1987) 「對比言語學 : 그 可能性과 限界」, 『인문과학논총』 19. 93-103쪽.
- 김성연(1994) 「언어 상대론에 관한 연구 : 언어 보편성과의 대조적 관점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3) 「국어 명사의 단위적 용법 연구: 분포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7) 「의사-기능 교수요목에 의한 영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실(1988) 「영어와 국어의 초분절음소 대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1) 「부류 샘술말로서의 샘 가름말」, 『배달말』 6. 1-28쪽.
- 김유진(2012) 「한국어와 태국어의 분류사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황혜나(2009)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용 실용서 개발 방안」,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009. 169-178쪽.
- 김인균(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 표현」, 『시학과 언어학』 9. 151-176쪽.
- 김정숙(199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교육』 9. 95-112쪽.
- 김주희(2011)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몽골어 학습 사전 편찬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호(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중국어 버전』, 역락.
- 나자루딘(2010)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수 분류사 비교 연구 : '개'와 'bush'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닷시도지 세인빌립트(2005)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택(2013) 「현대 몽골어 후치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이도(1998) 「중간언어와 교수법」, 『언어연구』 2. 113-145쪽.
- 백인정(2013) 「영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이해도 분석: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원(2010) 「한국어 분류사 '개'와 중국어 양사 '個'의 대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우은식(1983) 「우리말과 독일어 어휘의 의미면에서의 대조비교: 효과적인 독일어 교육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수 외 14인(2008) 『한국어 표현 문법』, 한국문화사.
- 손한 (1994) 「한국어와 영어의 단위명사」, 『한국어 교육』 5. 51-60쪽.
- 송지현(2006) 「중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접-어휘와 문법구조로부터 나타나는 간접」, 『중국어문학회』 22. 345-368쪽.
- 신동금(1993) 「교수설계 이론, 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09)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한국어문학연구』 53. 201-227쪽.
- 신호철·이연희(2009) 「한국어 수량구성의 유형과 특성」, 『문법 교육』 11. 5-70쪽.
- 심영택·위호정·김봉숙(역)(1995)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하우.
- 안상철·최인철(2008) 『영한대조분석』, 한국문화사.
- 안수정(2006) 「수 분류사의 유형적 특성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아(2007) 「현대 국어 의존 명사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슈에(2013) 「한국어 분류사 교육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형식(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 『牛岩斯黎』 9. 303-326쪽.

- ___(2001) 「한국어 인간성 분류사의 대조언어학적 검토」, 『比較文化研究』 13. 105-122쪽.
- 유동준(1983) 「국어의 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53-72쪽.
- 유재원(1999) 「자연어 처리를 위한 수사의 하위 범주 분류」, 『言語와 言語學』 24. 103-110쪽.
- 육요(2009) 「한중 분류사 대조 고찰 : 동형 한자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8) 「한국어 문말시상형태소의 오류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고 있다’와 ‘-ている’의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2011) 「日本人學習者를 對象으로한 韓國語 發音教授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순(1977) 「誤謬分析和 對照分析의 方向과 그 適用-李季順」, 『應用言語學』 9. 7-29쪽.
- 이성규(2006) 「몽골어와 한국어의 수사체계 비교연구」, 『몽골학』 21. 1-17쪽.
- 이승녕(1968) 『문법』, 을유문화사.
- 이익섭·채완(2007)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1969) 『새문법』, 일조각.
- 임호빈 외2인 (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장리리(2010) 「한국어 분류사와 중국어 양사의 비교 고찰」, 충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숙(1993) 「외국어 교육에서 대조언어학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로(2012)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띄어쓰기 오류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희(2010) 「중국어 양사와 한국어 단위명사의 용법 대조 연구-HSK어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2011) 「국어 명사구의 내적 구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우영·양호(2013) 「한국어와 중국어 수량 표현구의 구조 비교」, 『철학·사상·문화』 16. 189-216쪽.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채완(1983) 「국어 數詞 및 數量詞句의 유형적 고찰」, 『語學研究』 19. 19-34쪽.

- ___(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167-180쪽.
- ___(1998)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 49-63쪽.
- 첸드야유시 바르하스바드(2012) 「한국어-몽골어 문장 기계 번역 시스템의 설계」, 상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선(2007) 「격표지 대조 및 학습방안 연구 :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호(2001) 「영어공용어론에 대한 소고」, 『인문논의』 20. 43-68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표국남(2014) 「한국어와 베트남 어의 수 분류사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퓨퓨민(2011) 「한국어와 미얀마어 분류사의 대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사만(2003) 「한·일어 대조 연구의 어제와 오늘」, 『이중언어학』 22. 49-89쪽.

2. 국외문헌

- Fries, Charles Carpenter(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of Michigan.
- H. Douglas Brown(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longman.
-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2008).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Lado, Robert(1967). Patterns of Difficulty in Vocabulary. *Foreign language teaching*, (1): 77-86.
- Wanjea Jo(1998). 日本語 韓國語における數量表現の構照研究(1): 數量名詞句の構照を中心に. *日本語教育*, (15): 241-275.



부 록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관련 기초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한국어 단위명사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부 한국어 교육 전공과 관련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문학과 한국어 교육 전공 양보희-

※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사과 1(일) ② 사과 한 ③ 사과 하나
2.  ① 담배 1(일) ② 담배 한 ③ 담배 하나

※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위명사를 고르시오.

3.  . . 명
4.  . . 잔
5.  . . 마리
6.  . . 켈레

※ 다음 표현을 보고 바르게 읽은 것을 고르십시오.

7.

- ① 일 개
- ② 한 개
- ③ 하나 개

8.

- ① 이 일
- ② 두 일
- ③ 둘 일

9.

- ① 이 센티미터
- ② 두 센티미터
- ③ 둘 센티미터

※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10. 우유 () 개 있습니다.

- ① 한 ② 첫 ③ 하나 ④ 첫째

11. 공이 () 개 있습니다.

- ① 네 ② 넷 ③ 사 ④ 넷째

12. 가: 한국에 몇 달 있었어요?

나: () 살았어요.


- ① 사 달 ② 네 달 ③ 넷 달 ④ 네 개월 ⑤ 사 개월


13. 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저는 ()이예요.

- ① 20세 ② 스무 세 ③ 스무 살 ④ 이십 세 ⑤ 이십 살

※ 다음 그림을 보고 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14.  연필 한 개 () 연필 한 자루 ()

15.  자전거 네 개 () 자전거 네 대 ()

※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위명사를 고르시오.

16. 밥 한 ()이/가 있어요.

- ① 권 ② 그릇 ③ 마리 ④ 접시

17. 제 mp3에는 노래 아홉 ()이/가 있어요.

- ① 곡 ② 매 ③ 잔 ④ 층

18. 마이크 씨는 이번 시험에서 1 ()을/를 했어요.

- ① 급 ② 등 ③ 번 ④ 호

19. 미셸 씨는 꽃 한 ()을/를 선물 받았어요.

- ① 개 ② 장 ③ 다발 ④ 포기

20. 메건 씨는 극장에 가서 영화표 두 ()을/를 샀어요.

- ① 매 ② 열 ③ 인 ④ 가지

21. 이 문장은 한 () 잘못 되었어요.

- ① 개 ② 편 ③ 군데 ④ 바탕

※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시오. (복수 응답 가능)

22.

A: 안경 몇 개 있어요? B: _____ .

- ① 셋 있어요.
 ② 셋 개 있어요.
 ③ 세 개 있어요.
 ④ 삼 개 있어요.

23. A: 형제가 몇 명 있어요?
B: _____.

- ① 오빠 둘 있어요.
- ② 오빠 두 명 있어요.
- ③ 두 명의 오빠 있어요.
- ④ 두 명의 오빠들 있어요.

24. A: 그 책 재미있어요?
B: _____.

- ① 네, 이 책 재미있어요
- ② 네, 이 권 책은 재미있어요
- ③ 네, 이 권의 책은 재미있어요
- ④ 네, 이 한 권의 책은 재미있어요

※ 다음 표현을 보고 바르게 적은 것을 고르십시오.

25. 아침 9시

- ① 아침 구시 ② 아침 구 시 ③ 아침 아홉시 ④ 아침 아홉 시

26. 나무 1그루

- ① 나무 한그루 ② 나무 한 그루 ③ 나무 하나그루 ④ 나무 하나 그루

※ 다음 두 표현 중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선택하십시오.

- 27. 한 사람 () 사람 하나 ()
- 28. 두 남자 () 두 명 남자 ()
- 29. 소주 세 병 () 세 병의 소주 ()
- 30. 강아지 한 마리 () 한 마리의 강아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Counter words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Based on Beginner Learners from Chinese, Mongoli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

Bohee Y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seek for an efficient plan of education of counter words for foreign learner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cept and recognition of measurement in every language and is so in the expression of quantity. For example, in English, people recognize 'glasses' as a concept of pair. However, in Korean, they are recognized as one item in the unit of 'each.' As for the expression of quantity, people represent 'a student' in English, while they say it in four ways: 'one student', 'one person who is student', 'a student' and 'one of the students' in Korean.

Especially, when expressing the number in Korean, 'counter words' has widely been developed. There are about 300 'counter word' and are various types of them. For example, when expressing the number, if the nouns described are the people (object nouns), they use each/person/persons. In case of an animal, flower, and tree, they use 'mari,' 'songi,' and 'geuru,' respectively, as a unique Korean

measurement unit.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selecting the use of counter words depending on the nouns described (object nouns). For example, they cannot use 'mari' as a measurement unit for people, or 'person' for flower. Furthermore, it is not simply intended to consider the co-occurrenc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nouns and counter words when expressing the number but to be limited in using the numerals.

Numerals in Korean are divided into the native-Korean numerals and sino-Korean numerals. For example, the Arabian number '1' is used as 'one' in sino-Korean numeral and 'hana' in native-Korean numeral. In addition, if 'hana' is used as a 'numeral determiner', it is called as 'han.' For example, 'one student' is recognized not as a 'one student' but as a 'han student.' The problem is that native-Korean numeral or sino-Korean numeral is to be selected depending on each of the terms of counter words. The selection of such words is to be irregular.

In conclusion, Korean language uses nouns, numerals, and counter words to express the numbers. As the co-occurrence relationship is formed among the nouns, numerals, and counter words, it is limited to select the terms of each of them. Especially,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in selecting the numerals and counter words is not fixed, but there still exists an invisible balance. If this balance is lost, it becomes a grammatically incorrect sentence. Hereupon, there are many types of counter words in Korean language, and it is very complicated to correct use them. Seen in this light, it is natural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o feel much difficulty in using Korean counter words.

Therefore, textbooks released by seven universiti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current education for Korean counter words. At this time, types, number, and suggestions of each of the counter words dealt with in each textbook we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As a result, there are issues on the number of terms in counter words as well as how they are suggested in many of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used by foreign learners. Among about 300 different terms of counter words, too many of them are being suggested without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use in daily lives. In terms of how they are suggested, structural usage is overlooked since they are suggested as an individual term. Korean language of counter words are diversely selected in terms of the antecedent nouns or numera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Therefore, they are recommended to be suggested by focusing on structural fulfillment elements rather than on the delivery of the meaning for each individual word.

Hereupon, this study was conducted identifying the current education of counter words in Korean language through the analysis on Korean language textbooks, implement preliminary survey and follow-up interview to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examine about difficult issues for them to use and learn about counter words.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one of the errors foreign learners made in using the counter words was influenced by their native language as shown in the follow-up interview. What type of structure in their native language interrupted from using the correct counter words was analyzed based on the types of error occurred by the previous knowledge of their native language.

At this time, Chinese, Mongolian, and English languag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s for Chinese, it is of a same Chinese-speaking culture as Korean language, and Mongolian language is of a same-rooted Altaic language as Korean language. However, English is of a totally different language than Korean as an Indo/European language. However, Chinese learners in the same cultural backgrounds, Mongolian learners in the same racial root, and foreign learners from English-speaking culture did have a difficulty due to the previous knowledge of their native language.

In order to seek for solution from the types of error shown in the survey, education plans for counter words were suggested. When learning about counter words in Korean language, particular instruction resources were suggested for foreign learners to be informed of structural parts of the usage first. Based on these instruction resources, practical textbooks for teachers were developed targeting to

when instructors provide a lecture to foreign learners from each of the different language-speaking cultures. This practical textbook contains the educational aspects such as suggestions or notes of attention when providing the education about counter words for foreign learners from Chinese, Mongolian, and English-speaking cultures as well as the linguistic aspects such as the difference in structure of each language and Korean or the difference in the use of counter words.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how it not only dealt with the contents in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but also analyzed the difficulty and causes of errors faced by foreign learners from each of the different language speaking cultures to seek for the solution. However, it is still limited for not being able to prove the efficiency that might be shown after applying the suggested resources to the real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counter words, Education of classifiers, Classifier, Counter words, Counters, Measurement words, Numerals, Numeral classifiers, Quantifier, Learners from China, Learners from Mongol, English-speaking learners